

역사 뒤 돌아보기

이재훈

소개글

목차

1	불 가 사 의(不可思議)(一)	4
2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二)	7
3	밀 담(密談)(三)	19
4	삼국의 왕권교체(四)	23
5	반 란 진 압 Programm(五)	26
6	꺼져가는 촛불을 살리다(六)-1	33
7	꺼져가는 촛불을 살리다(六)-2	47
8	꺼져가는 촛불을 살리다(六)-3	68
9	꺼져 가는 촛불을 살리다(六)-4	72
10	꺼져 가는 촛불을 살리다(六)-5	79
11	불가사이에 대한 해답(七)-1	93
12	불 가 사 의에 대한 해답(七)-2	111
13	현대전에 몽골의 군사전술이 이용되다(七)-3	143
14	골 육 상 쟁(骨肉相爭)(七)-4	146
15	6살 백이가 중국황제에 등극하다(七)-5	157
16	제국의 분열(七)-6	164

(一)

○ . 이 수수께끼의 해답은 무엇일까?.

1592년 4월14일 일본의 풍신수길은 15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하여, 7년 동안 조선에 머물면서 양민학살은 물론 전 국토를 속대밭으로 만들었다.

조선으로 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명나라는 1592년12월에 이여송을 총대장으로 삼아 4만3천여명의 대군을 조선에 파병했다.

그리고 일본은 1597년(선조30년:정유년)에 조선을 재침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데다가, 그 이듬해인 1598년에 풍신수길이 사망함으로써 철수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의 후유증이 채가시기도 전인 1636년(병자년)에 청태종은 용골

대를 선봉장으로 삼고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다.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다.

일본은 1598년에 풍신수길의 사망함에 따라 멸망했고, 조선에 4만여명의 지원군을 파병한 명나라도 1636년에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정작 2 차례 전쟁으로 수 백만명의 백성들이 사망했고, 전 국토가 유린되어 논.밭을 경작할 땅이 없어서 수 십만명의 아사자(餓死者)들을 속출한 조선은 살아 남아 500년의 역사를 이어갔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닌가?

※. 이 게시글의 후속편으로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유민(二)" 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풀기 전에 먼저 사전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동이민족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야 사학자 김인희 선생님의 저서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유민"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뿐만아니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이란 프로젝트(Project)에는 어떠한 음모가 내포되어 있으며, 中華魂을 내세워 만주대륙과 북한지역을 석권하려는 그들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귀

중한 사료(史料)라고 생각되어 내용의 일부를 복사하였으니 탐독하신 후, 추후에 제가 작성 할 수수께끼의 해답과 여러분의 판단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二)

○. 고구려 유민사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의 이야기이다.

디아스포라(diaspora)의 사전적 정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져 유대교의 관습과 규범을 따르며 살아가는 유대인 또는 그들의 거주지를 일컫는 말이다. 또 이산(離散)유대인, 이산의 땅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런 의미에서 고구려유민 또한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다.

○.천년 동안 자주권을 지켜 낸 고구려유민

1) 명나라 시대

서부 마오족과는 달리 끝까지 자신들의 영토를 지켜내고 항복하지 않

은 이들을 역사는 생묘(生苗)라 부른다.

이 지역은 바로 당나라 시기 고려라는 지명이 발견된 곳이며, 송나라시기 "가뤄"라는 민족이 거주하던 곳이다.

주원장으로 부터 시작된 200년간의 먀오족지역에 대한 군사정벌은 300여 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구이저우 동남지역과 후난일대에는 효과가 아주 적었는데, 이는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먀오족때문이었다.

원,명,청에 이르는 시기 생묘는 상당히 많았다. 곽자장(郭子章)은 당시 상황을 "생묘가 많고 숙묘(熟苗)가 적다"라고 적고 있다. 생묘는 한족의 입장에서 생소한 먀오족이란 뜻이고 숙묘는 이미 아는 익숙한 먀오족이라는 뜻이다.

당나라 개토귀류 이전에 비교적 큰 두개의 생묘지역이 있었는데 홍묘오(紅苗)와 헤이묘오(黑苗)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홍묘오는 후난성일대에 거주하는 먀오족이며, 헤이묘오는 구이저우 동남지역에 거주하는 먀오족이다. 보통 홍묘오는 동부먀오족, 헤이묘오는 중부먀오족이라 부른다.

생묘는 고구려유민을 중심으로 여러 민족이 여러시대를 거치면서 새롭게 하나의 민족으로 등장한 것이니 생소한 것이 당연한 것이다. 생묘는 복종을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숙묘지역을 침입하는 일까지 벌 어졌다.

명황조는 생묘세력을 제압하지 못했고, 결국은 성을 둘러싸서 고립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후난성의 평황(鳳凰)에서 구이저우의 통런(銅仁)에 이르는 지역에 성을 쌓아 이 지역의 생묘가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자 했다.

1615년 부터 시작해 8년간 20만명, 백은 4만냥을 들여 180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성을 쌓아 생묘를 고립시킨 것이다. 이 성을 묘강변장(苗疆邊牆)이라 부르는데, 명나라 변경에 있는 성이라는 뜻으로 생묘지역을 국외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7월19일 나는 묘강변장에 올라 명문을 확인했는데 명문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

"먀오족은 한인지역에 들어 올 수 없으며 한인은 먀오족이 사는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명대 이전의 봉건왕조는 현지민이 현지민을 직접 다스리는 형태인 기미제도와 토사제를 실시해 왔으나 이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었다.

기회가 되면 한족으로 현지 지도자를 바꾸려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한 것이 바로 명대 중엽에 실시된 개토귀류(改土歸流)이다.

개토귀류란 토사(土司)를 없애고 유관(流官: 조정에서 직접 임명한 정식 관리)를 보내 직접 다스리는 제도를 말한다.

명나라 군대는 구이저우도 침입해 왔는데 1373년에 벌어진 제1차침입

때는 마오족이 중국군대를 이겼다. 40여년이 지난 1414년에 명나라 성조(成祖)는 다시 5만여명의 군대를 파견해 구이저우는 함락되었다. 이로써 화외(化外)로 인식되어 온 구이저우가 중국의 직접적인 통치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중양왕조는 원활한 통치를 위해 1402년 구이저우를 하나의 성으로 독립시키고 한족들을 대규모로 이주시켰다. 명나라시기에는 "강서전화광, 호광전사전(江西填湖廣 湖廣填四川: 장사성사람으로 후난과 광시, 광둥성을 보충하고, 후난과 광시, 광둥성의 사람으로 쓰촨성을 보충하는)정책을 실시해 장시와 장쑤일대의 한족들이 쓰촨, 구이저우, 윈난일대로 강제이주당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대량의 한족군대와 농민, 상인, 공인들이 구이저우로 흘러들어 오게 되었다. 구이저우와 윈난의 마을을 답사하다 보면 명나라때 이주해 온 한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아직도 명나라 시기의 복식과 풍속을 유지하고 있다. 소수민족들을 답사하다 보면 자신들의 조상이 장사성에서 이주해 왔다고 이야기하는 예가 많은데 이는 모두 주변 한족들의 영향때문이다.

당시 아들이 셋이면 한명을, 다섯이면 세명을 군인으로 징집해 강제이주시켜 구이저우, 윈난일대의 치안을 담당하도록 했다.

현재 둔(屯)자가 들어가는 지명은 예전에 한족군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명나라는 군대를 동원해 마오족마을 을 침략하고 사람들을 도살했으며 산속으로 몰아 내었다. 이렇게 빼앗은 땅은 한족들에게 나눠 주어 살게 했다. 이로 인해 한족은 평지에 살고 소수민족은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형국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현재도 "마오족은 산꼭대기에 살고 좡족은 물 근처에 살고 손님(한족)은 거리에 산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도살과 몰아내기로 일관한 명나라의 정책은 당연히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 생존을 위해 명나라 영종천순2년(1458)구이양(貴陽)일대의 마오족은 간파저(干把猪)를 왕으로 추대하고 중앙정부의 폭력정책에 항거했는데 주변의 다른 민족도 이에 동조해 참여했다.

이들은 두윈(都勻), 신텐(新添), 룡리(龍里)등의 군사기지를 파멸시켰지만 명왕조는 쓰촨, 구이저우, 윈난, 광둥들 5개 성의 군대를 이용해 공격했고 간파저는 체포되었다.

이 기의로 인해 625개의 마오족마을이 파괴되었으며 3만1000명이 죽었고, 7천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한다. 부녀자와 아이들 할것 없이 모-두 몰살당해 산과 들에는 시체가 널려 피로 물들었다.

역사는 이 전쟁을 석문산전역(石門山戰役)이라 부른다.

전쟁은 끝났으나 당시의 피눈물 나는 고통은 영원히 마오족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다. 이 전쟁과 관련된 전설은 현재도 많이 남아 있으며, 매

년 음력 4월8일에는 구이양에 모여 당시의 전쟁영웅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지고 있다. 4월8일은 현재 먀오족의 전체 명절로 지정되어 있다.

2) 청나라 시대

청나라 옹정연간에는 원구이총독(雲貴總督) 어얼타이(鄂爾泰)의 상소에 의해 생묘지역에 대한 개토귀류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이전까지 생묘지역은 먀오족들이 중앙정부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었다.

고주(古州)를 중심으로 구이저우 동쪽의 먀오링(苗嶺)산맥과 칭수이강(淸水江), 두강(都江)유역은 외부와 교류가 없어 삼천리묘강(三千里苗疆)이라 불렸으며 1,300개의 마을에 백만생묘가 살고 있었다. 이 지역은 현재의 구이저우 동남 먀오족동족자치주(苗族東族自治州)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청나라 옹정연간까지 이 지역은 중국땅이 아니었으며, 먀오족, 즉 고구려유민이 형성한 먀오족은 중국사람이 아니었다. 고구려유민은 남방으로 유배를 당한 후에도 독자적인 영역과 자치권을 천년동안 유지했던 것이다.

청나라에 이르러 먀오족에 대한 탄압이 극도에 이르게 된다.

청나라는 둔전(屯田)을 설치해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으며 이에 반대하는 마오족을 학살했는데 심지어는 다섯살 이상의 모든 남자를 죽였다고 한다. 이때 마오족의 3분의2가 죽음을 당했으며 나머지는 윈난과 베트남, 동남아로 또다시 피난을 가게 된다.

이와같은 무자비한 착취와 도살은 끊이지 않았고, 이에따라 마오족의 투쟁도 쉽없이 일어났다. 청나라 옹건(雍乾)에서 함동(咸同)사이 100년간 마오족의 3대 투쟁이 있었다. 즉 옹건기의(雍乾起義), 건가기의(乾嘉起義), 함동기의(咸同起義)가 그것이다.

이들 기의는 자신들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마오족의 투쟁이면서 고구려유민의 마지막 투쟁이기도 했다.

옹건기의(1735~1736)는 청나라의 개토귀류를 반대해 일어난 마오족의 첫번째 기의였다. 어얼타이는 청나라군대를 이끌고 4년 동안 공격해 구이저우 중부와 북부의 1000여개 마오족마을을 점령했다. 방법은 마을을 불태운 후 도살하고 몰아내는 것이었다.

정복된 지역에는 정부기관을 세우고 관리를 파견했는데, 새로 변경에 세운 여섯개의 관청이라하여 신강육청(新疆六廳)이라 불렀다.

관리를 파견한 후에는 마오족지역에 세금과 노역의 의무를 부과했다. 옹건기의는 착취에 대한 반항이라기 보다는 자주권이 침입당한 것에 대한 울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1735년에 포리(包利)와 홍은(紅銀)은 마오족을 이끌고 기의를 일으켰다.

이 기의로 죽거나 굶어 죽는 사람이 13만명이고 1224개 마을이 파괴되고, 70~80%의 사람이 죽어 마을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타향으로 떠났고, 청나라에 반항한 군인의 가족 1만3천6백여명은 노예가 되었다.

건가기의(1795~1797)는 "개토귀류를 반대한 투쟁으로 먀오족이 피와 목숨으로 민족의 생존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개토귀류이후 관이 설치되고 군대가 주둔하면서 이전의 중앙의 통치를 받지 않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 상황이 완전히 교란되었다.

그후에 진행된 능멸, 노역, 노략질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먀오족은 기본적 권익을 위해 반항할 수 밖에 없었다.

먀오족이 건가기의 시 내세운 구호는 먀오족 말로 "데두"였다. "데"는 때리다라는 뜻이고, "듀"는 한족이란 뜻으로 데듀는 곧 "한족을 때려 잡자"라는 뜻이다.

오팔월(吳八月)과 석삼보(石三保)는 "손님(한족)을 몰아내고 옛땅을 되찾자"며 먀오족을 이끌고 일어났다.

한족의 족보를 보면 대부분 이시기에 죽은 사람이 많은데, 모-두 기의를 일으킨 먀오족들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한다.

비록 건가기의는 1797년에 실패했으나 그 여파는 계속되어 청 정부는 7

개 성의 십만명의 대군을 이끌고 백여번의 전쟁을 통해 12년만에 진압했다. 이 전쟁으로 먀오족마을이 1,000여개가 파괴되었고, 인구의 60%가 도살당하거나 도망을 하여 백만 인구는 10만으로 줄어 들었다.

청 정부는 먀오족을 수렵물로 생각해 맘대로 죽이고, 포로로 잡는 것을 허락했다. 건륭연간의 문헌인 [영수청지]에도 "먀오족 한명을 생포하면 은 다섯냥을 한 사람을 죽이면 은 세냥을 준다"는 기록이 있다. 그야말로 먀오족 말살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이로 인해 먀오족은 절멸할 위기에 처했다.

함동기 의(1855~1872)는 청 정부가 세금과 요역을 증액한 것에 반대해 일어난 기 의이다. 장수미(張秀眉)가 주도했는데, "군인을 몰아내고 토지를 되찾자"는 구호아래 기 의를 일으켰다.

기 의는 빠른 속도로 전체 구이저우 동남 먀오족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장수미는 각지의 기 의군과 연합해 빠른 속도로 세력을 넓혀 나갔다. 1858년 말 먀오족 군대는 동쪽으로는 후난과 구이저우 경계지역, 서로는 구이양(貴陽)근처까지 세력을 확대해 구이저우 동남지역 전체를 점령했다. 이로써 먀오족은 잃었던 영토를 다시 확보하고 자주권을 획득하는 듯 했으나, 1864년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한 청 정부가 후난, 구이저우, 광시, 쓰촨, 광둥 5개 성의 군사를 모아 공격함으로써 1872년 함동기 의는 18년만에 실패하게 된다.

장수미는 끌려가면서 동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좋은 형, 좋은 동생, 좋은 누나, 좋은 여동생

할일 있으면 빨리 가서 하세요

수 놓을 것이 있으면 빨리 가서 수를 놓으세요

이 세상에서 저는 갑니다.

다음 세상에서 다시 돌아 와 모-두와 함께

관군을 모-두 죽이고, 땅을 되찾아 나무를 심고,

땅을 얻어 곡식을 심고,

우리 자손이 물고기 새끼처럼 관가의 집을 즐겁게

돌아다니게 하겠습니다.

결국 장수미는 후난 창사(長沙)로 잡혀 갔는데, 청나라 통치자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장수미는 대답했다

"너희 관가와 지주는 우리를 먹었고, 우리의 피를 빨아 먹었고, 우리의
골수를 부숴버렸고, 조상의 뼈도 편히 쉬지 못하게 했다.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겠는가!"

페이샤오통(마오인)은 함동기기에 대한 마오족의 기억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구이저우 황핑현(黃平縣)부근의 언덕에는 살인동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함동연간에 청 황제가 군대를 파견해, 모-든 마오족은 조정의 교지를 들으라며 이 언덕으로 유인해 모-두 죽이고 시신을 동굴에 던져 버렸다. 동굴에 던져버린 사람들의 피가 강으로 흘러 내려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일이 발생한 것을 알고 도망을 갔다.

이 사건은 마오족에게 뼈에 새기는 한을 품게 했다."

고구려유민은 AD669년 중국의 남부로 이주했다. 이들이 생묘다. 청나라 초부터 시작된 100년간의 대대적 토벌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되었다.

끝으로 첨언한다면, 마지막 부분의 살인동 사건은 1950.6.25.전란 때 남한에서 벌어진 양민 대량학살사건과 살인수법이 많이 닮아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인가?.

○. 고구려는 우리의 미래다.

고구려는 큰 나라다. 영토 뿐만 아니라, 가치들을 잘 모르지만 정치적,

문화적, 경제력도 큰 나라 였다. 무엇보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마음 큰 나라 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동아시아 세계의 한 가운데에서 700년 이상을 강국으로 존재할 수 있었
겠는가!.

현재 중국이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서 고구려의 말살을 선택했다
면, 그 의도만으로도 고구려가 21세기에 효율적인 가치가 있고 의미 깊
은 존재임을 반증한다.

고 구 려 는 우 리 의 미 래 이 다

(이 대목은 역사학자 윤명철 선생님의 저서 "고구려, 역사에서 미래
로" 중 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이 게시글의 후속편으로 "밀담(三)"이 이어집니다.

(三)

★ 무대 뒤

연못 옆에 세워진 정자에 진수성찬이 차려진 수라상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다. 저택의 규모로 보아 당대 최고 권력자의 자택임을 알 수 있다.

주인 : 며칠 걸리셨습니까?

객 : 왕복 1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주인 : 무슨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객 : 문제는 막북의 북노(北虜)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인수받을 영웅을 물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 : 왕권을 인수받을 영웅.....?

그럼 여진족을 말하는 것이요

객 :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가제는 계편이라 서로 통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주인 : 반란은 어떻게 진압하신다고 합디까?

객 : 아직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 : 아직도....? 그럼 큰 문젠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소.

객 : 책임자가 두 사람있긴 합니다.

주인 : 그사람이 누구요.

객 : 한사람은 평양 관찰사(平壤觀察使) 오삼계이고, 다른 하나는
섬서성 사람으로.....그가 장수의 재질을 타고 났다고 들었습
니다.

주인 : 누구니까?

객 : 이자성이란 자입니다.

주인 : 지금 직위가 뭐요.

객 : 역졸이라고 들었습니다.

주인 : 역졸이라....알았소. 근데 촌각을 다투는 때에 오고 가는데 한달이나 걸려서 일이 되겠습니까?

객 : 제가 그 말씀을 올렸더니, 유능한 장수 하나를 천거할테니 그의 거처를 마련하라 하셨습니다.

주인 : 그가 누구요?

객 : 모문룡이라 하셨습니다.

주인 : 어디가 좋을 것 같소.

객 : 남경에서 한양까지 육로에는 통과해야 할 관문이 많고, 눈에 띈 염려가 있으니 해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 : 그게 어디요.

객 : 압록강 하구에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가도라는 섬입니다.

주인 : 그래요. 알겠소. 그리고 여진문제는 어떻게 하겠소.

객 : 20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거기도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중국의 주인이 되라고 하면, 그들이 내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주인 : 그렇군요. 그럼 둘째가 총명하니 개를 데리고 다녀 오시오.

객 : 알겠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곧 출발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인 : 이번 일에 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오.

객 : 황공하옵니다.

주인 : 그럼 잘 다녀오시오.

객 : 백골난망(白骨難忘)입니다.

※ 이 게시글의 후속편으로 삼국(三國)의 왕권교체(四)"가
이어집니다.

(四)

- 40년동안(1592~1636)에 발생한 조선, 명, 여진족의 왕권교체연표(王權交替年表)

1) 조선의 왕권교체

- 가) 선 조 : 1592 전국적 반란이 일어남.
(1552~1608)
- 나) 광 해 군 : 1608 광해군이 즉위하다.
(1608~1623) 1619 해외파병
- 다) 인 조 : 1623 반정으로 즉위
(1623~1649) 1627 정묘호란
1636 병자호란

2) 명나라의 왕권교체

가) 만 력 제 : 1589년 부터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나다
(1573~1620)

나) 송 정 제 : 1627 즉위 (홍타이지 즉위 다음해)
(1628~1644) 1636 멸망

3) 여 진 족이 나라를 세우다.

가) 누 루 하 치 : 1606 애신각라 건국.
(1606~1626) 1616 국호를 후금으로 개칭(광해군8년)
1626 사망

나) 홍 타 이 지 : 1626 칸에 오름(인조4년)
(1626~1643) 1627 조선침략
1636 국호를 청으로 개칭. 조선재침략

1643 사망

다) 순 치 제 : 1644. 6살에 중국황제에 등극하다.

1644 북경입성

(1644~1661) 1645 남경점령

위의 년표는 짧은 기간에 삼국(三國)이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이 게시글의 후속편으로 "반란진압 Program(五)"이 이어집니다.

(五)

○ . 반란진압 Programm

제 1 부

- 1막) 농민봉기 : 1589년(萬曆帝17년)부터 명나라는 전국적 농민봉기에 직면하다.
- 2막) 전국적 반란 : 1592(선조40년:명나라 만력20)년에 조선에서 전국적 반란이 일어나다.
- 3막) 애신각라(愛新覺羅)건국 : 1606년. 여진족인 누루하지가 나라를 세우다
- 4막) 광해군 즉위 : 1608년. 조선왕이 교체되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다
- 5막) 가도(假島)에 명군주둔 : 명나라 장수 모문룡이 가도에 주둔하다.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다.

제 2 부

1막) 국호를 후금으로 개칭 : 1616년(재위10년). 누루하지가 국호를 후금으로 바꾸다.

2막) 인조 즉위 : 1623년.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다.

3막) 누루하지 사망 : 1626년 9월30일. 누루하지가 사망하다.

4막) 칸에 오르다 : 1626년(인조4년). 홍타이지가 칸에 오르다.

제 3 부

- 1막) 정묘호란 : 1627(인조5년)에 후금의
홍타이지가 조선을
침략하다.
- 2막) 농민봉기 : 1628(송정원년). 이자성이 농
민봉기를 이끌다.
- 3막) 명나라 멸망 : 1636년에 명이 멸망하다.
- 4막) 국호를 청으로 개칭 : 1636년(재위10년). 홍타이지
가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개칭하다.

5막) 병자호란 : 1636(인조14년)에 홍타이지가 조선을 재침략하다.

6막) 청태종 사망 : 1643년에 홍타이지가 급서하다.

제 4 부

1막) 순치제(順治帝) 등극 : 1644년. 6살백이 순치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다.

2막) 대순국(大順國)을 세우다 : 1644년3월. 이자성이 대순국

(大順國)을 세우다.

3막) 남명정권(南明政權)을 세우다 : 1644(순치원년). 명의 후손들이 남부지방에서 건국하다.

4막) 남명정권이 붕괴하다. : 1664년. 남명정권이 완전 소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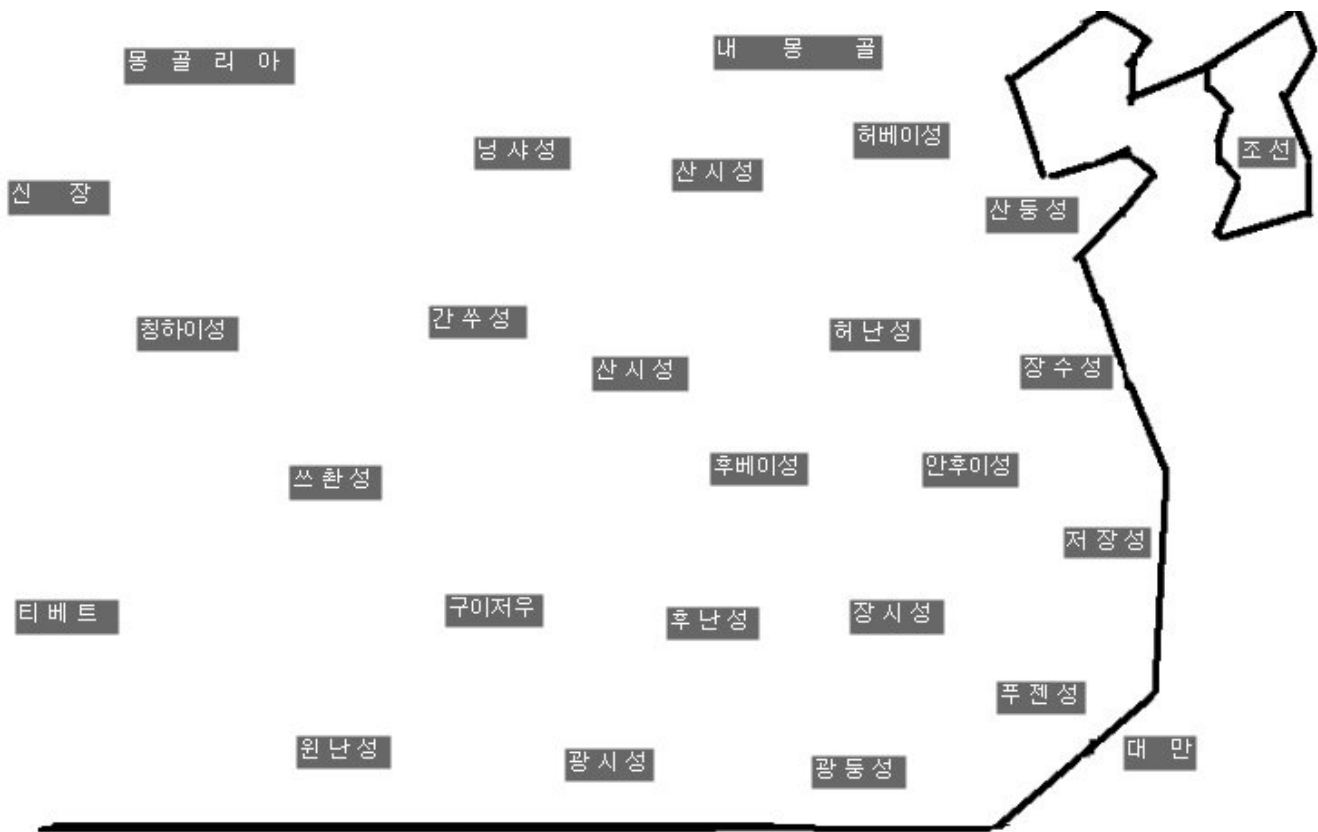
5막) 삼번의 난(三藩의 亂) : 1673년. 오삼계가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반란을 주도하다. 삼번의 난(三藩의 亂)을 이끌다.

6막) 오삼계 사망 : 1678년에 오삼계가 죽다.

7막) 삼번의 난이 종식되다. : 1681년에 삼번의 난이 종식됨으로써, 천하가 통일되다.

※ 이 게시글의 후속편으로 "꺼져가는 촛불을 살리다(六)-1"가 이어집니다.

(六)-1



□ . 네가 죽으면 내가 죽게 된다.

○ . 고려 영역

가) 고려 삼경

고려의 삼경은 중경, 서경, 남경을 말한다.

중경은 지금의 경주, 서경은 지금의 평양, 그리고 남경은 지금의 서울이다. 1067년(문종21)때 강소성 양주(江蘇省 楊州)에 남경을 설치했다.

(이상은 이흥직편저 "국사대사전"에서 발췌한 것이다)

고려 26대 충선왕은 원나라 무종(武宗)이 황제로 즉위하는데 공로가 있어 심양왕으로 책봉된다. 충선왕은 고려왕으로서 원의 심양왕의 작위도 가지게 되는데 이때의 심양왕의 치소(治所)가 심양 즉 감숙성(甘肅省) 장가현 현이었다. 이곳은 원래 고죽국(孤竹國)의 도읍지였고, 고구려의 영토였고, 고려 초기에 해주(海州)였다.

심양왕은 동녕부東寧府(陝西省 西安市-고려의 서경), 쌍성총관부 雙城總管府(섬서성 요현耀縣-고려의 영흥), 그리고 개원로開元路(감숙성 회령현)을 통치했다. 섬서성의 중북부, 그리고 감숙성 동부지역이 그 관할강역이었던 것이다.

요,금,원대의 대륙에는 고려가 이들 나라들과 이웃하고 있었는데, 고려의 도읍지 개경은 산둥성 임치구(山東省 臨淄區)에, 안휘성 봉양현(安徽省 鳳陽縣)에 경주가, 섬서성 서안시(陝西省 西安市)에 평양이, 북경시 동성구(北京市 東城區)에 연주(延州)가 위치하고 있었다.

원나라 때 지금의 북경시는 고려의 연주(延州)였기 때문에 원의 연경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다. 원의 연경(燕京)이 감숙성 천수시(甘肅省 天水市)다.

북경시에는 원대의 궁성은 한반도의 평양에서 원나라의 유적을 발견할 수 없듯이 그 흔적도 없다.

(이상은 재야 사학자 이병화 선생님의 저서 "대륙에서 8600년, 반도에서 600년"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의 수도는 현재의 북경(北京)이고, 서경은 섬서성 서안(陝西省 西安)을, 동경은 한반도 개성을, 남경은 강소성 양주(江蘇省 揚

州)를 말한다.

그래야 광활한 대륙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 당시 중국대륙에는 원나라와 고려만이 존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북경을 중심으로 보면, 서쪽은 섬서성 서안이 되고, 남쪽은 강소성 양주가 되며, 그리고 동쪽은 한반도의 개성이 된다.

2) 중국대륙 남부지방, 구이저우, 후난성, 윈난성에 살고 있는 고구려 유민들은 고대 부터 한족들에게 심한 핍박과 착취를 받아 왔고, 명나라 말기에 관료들의 부정 부패가 극에 달해 민심이 흉흉하던 차에, 성상가상으로 가뭄 까지 들어서 전국 여기저기에서 작은 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구려 유민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대명투쟁(代明鬪爭)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가장 먼저 농민봉기에 앞장 섰던 것이다.

이러한 고구려 유민들의 반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자성이 전국의 농민봉기를 이끌었던 것이다.

이자성이 바로 조선의 광해군이 심어 놓 간세였고, 모처럼 타올랐던 혁명의 불꽃은 이 간세의 농간으로 말미아마 꺼져버렸던 것이다.

이자성은 전국의 민란을 책임졌고, 명나라 장수 오삼계는 관료들의 이 탈을 담당했던 것이다. 즉 군의 반란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는것이 오삼계의 임무였다.

오삼계가 청에 투항하여 큰 공을 세운 후, 평서왕이 되어 부임한 곳이 바로 생묘의 터전인 운남성(원난성), 귀주성(구이저우), 호남성(후난성)이었던 것이다.

이자성은 섬서성 미지현(米脂縣)사람으로 섬서성과 산시성의 농민봉기를 이끌었다. 구이저우 바로 위가 섬서성이고, 남부와 중부에서 발생하는 농민폭동을 이끌었던 것이다.

3) 중원에서 쫓겨난 원나라는 막북에 북원정권을 세워, 명나라와 고토회복을 위한 전쟁을 수 십차례나 치렀다.

토목(土木)의 변과 경술(庚戌)의 변이 대표적인 예다.

4) 조선에서 발생한 전국적 반란이다. 역사를 조작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 당시의 시대상황을 정확히 알려 주는 사료는 없다.

때문에, 명나라의 사회현황과 조선의 시대상황을 비교하면서 당시의 사태를 판단하는 도리 밖에 없다.

명나라에서 농민폭동이 일어나는데, 왜 조선이 영향을 받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 보아야 한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토착동이민족은 생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한 한족들로 부터 핍박과 착취를 당하고도 어디에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그들에 대한 동족의식이 전국적 반란을 촉발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 원의 수도는 어디인가?

양주(楊州)아래에 있는 절강성 항주(杭州)가 사실은 원나라의 수도다.

말코폴로는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의 고문이었고, 20여년 간 항주에서 머물면서 자신이 보고 느낀 당시의 사회상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했다. 이것이 유명한 동방견문록(東邦見聞錄)이다. 동방견문록은 그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제삼자가 그의 말을 빌려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허점이 있다.

왜 동방견문록을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작성했는가?
그가 기행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는가?
원의 황제 쿠빌라이가 그를 자신의 고문으로 삼을 정도면, 그의 모든 능력이 이미 검증을 받았다는 증거다.

만약 말코폴로가 동방견문록을 직접 작성을 한다면, 항주(杭州)의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동방견문록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작성하여 세상에 내 놓은 것이다.

그게 아니면, 말코폴로가 작성한 기행문을 추후에 제삼자가 수정하여 세상에 출현시킨 것이다.

그리고 원의 초기 국호는 노국(魯國)이다.

고려 공민왕의 비(妃)의 기휘(忌諱)가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다. 즉 당시 세계를 제패한 노국의 백성들이 사랑하고 흠모하는 공주라는 뜻이다. 하긴 비명에 죽은 그녀의 영혼이라도 달래려면 이런 칭호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는가?

또 두 나라가 직접 통신을 하려면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국가대사에 어찌 화급을 다투는 일이 없겠는가?. 당시의 통신수단은 말이다. 양주(楊州)는 항주(杭州)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리고 원나라가 수도를 항주에 둔 이유는 복건성(福建省)에 소속된 대만과 오키나와에 있는 왜구(당시 해적)들의 본토상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대만, 오키나와, 그리고 남중국해는 이들 해적들의 활동무대였고, 이들은 조정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함을 기회로 본토에 상륙하여 노략질과 겁탈을 일삼는 골치아픈 존재들이었다.

이 해적들은 대만 주민들과 오키나와 섬 주민들로 구성된 혼성팀이었다.

1300년 전, 왜구는 신라군과 함께 한반도에 기습상륙하여 백제의 배후

를 공격함으로써 전황이 역전되어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당하는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경계대상 이었던 것이다.

다) 천 도(遷 都)

영락 9년(1421)에 명나라는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기고, 남경을 제2의 수도로 삼았다

(이 대목은 김희영 선생님의 저서 "이야기 중국사(권3)"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라) 토목(土木)보의 참패

명나라가 가장 경계해야 할 상대는 막북으로 도망친 몽골족의 잔존세력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중원에서 몰아 낸 명나라에 대하여 항시 복수의 칼을 갈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명나라 창건 이후 동쪽의 달단과 서쪽의 오이라트가 명의 국경을 자주 침범하였다.

정통 14년(1449). 오이라트군은 일제히 명나라 국경을 침범하였다. 동쪽 요동으로 부터 서쪽 감숙성에 이르기 까지 전 국경에 걸쳐

노도처럼 공격했다. 에선이 직접 거느린 주력부대는 산서의 대동(大同)을 공격해 들어 왔다. 각 요충지를 지키고 있던 명나라 참장(參將) 오호(吳浩), 서령후 송영(宋瑛), 무진백 주면(朱冕) 등이 잇따라 패전하여 전사하였다. 양화(陽和)의 전투에서는 감군(監軍)으로 있는 환관 곽경(郭敬)이 대패하여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 같은 급보를 접한 명나라 조정에서는 영종이 참석한 가운데 중신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왕진은 영종의 친정(親征)을 권하였고, 병부상서 광야, 병부시랑 우겸(于謙)등을 비롯한 중신들은 친정에 반대했다. 마침내 친정이 결정되어 영종은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북경을 출발하였다. 북경은 영종의 동생 주기옥(朱祁鈺)을 유수(留守)로 삼아 지키게 하였다.

영종의 친정인 만큼 많은 고관과 장군의 시종들 까지도 함께 떠났다. 왕진은 일개 환관일 뿐 군사작전에는 완전 백지였다. 50만이라는 병력의 숫자만 믿고 있는 형편이었다. 8월2일 영종은 대동(大同)에 도착하였다.

왕진이 택한 길은 북쪽에 치우쳐 있어 오이라트 군대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다. 높은 기동성과 민첩한 정보수집망을 거미줄처럼 펼치고 있는 에선은 명군의 움직임을 빠짐없이 포착하여 추적하고 있었다. 에센을 길게 뻗쳐 행군하는 명군의 최후미 부대에 공격을 가하였다.

황제의 호위군을 지휘하던 공순후 오극충(吳克忠)과 그의 동생 도독 오극근(吳克勤)이 분전하다가 전사하였다. 이를 구하기 위하여 성국공 주용(朱勇)과 영순백 설수(薛授)가 4만의 군사를 이끌고 뒤돌아 달려 왔으나 이들도 요아령이라는 곳에서 궤멸되고 말았다. 이것이 8월13일의 일이었다.

후미부대를 궤멸당한 명군은 다음달 토목(土木)이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이곳에는 영락제 때 쌓아 놓은 성채가 있었고, 이곳에서 10킬로 미터 되는 곳에 회래성(懷來成-하북성 회례현)이 있었다. 제장들은 모-두 이 회례성으로 들어 갈 예정 이었다.

몇사람의 반대가 있었지만, 왕진은 수송부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그대로 토목의 성채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십만 대군이 토목의 성채에 주둔하였다.

다음날 오이라트군은 토목의 성채를 포위하였다. 오이라트군의 한쪽 병력이 포위를 풀고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명군은 성채를 빠져 나오면서 공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던 4만의 오이라트 기병에게 여지없이 짓밟혀 섬멸되고 말았다. 수십만의 사상자를 내는 대참패였다.

영종의 친정을 강행했던 장본인 왕진은 호위장교에게 박살(撲殺)당하고, 영종의 친정을 반대했던 병부상서 광야와 총사령관 영국공 장보(張

輔)등은 중신들과 함께 장렬히 옥쇄(玉碎)하였다.

영종은 어찌할바를 몰라 초원에 주저앉아 있다가 오이라트군의 포로가 되었다. 친정 중에 황제가 포로로 된 일은 역사상 없었던 일이었다. 이 사건이 토목의 변이다.

마) 북노(北虜)의 변

에센이 스스로 칸에 자리에 오른것은 토목의 변이 있은지 2년 후 (1451)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후 부하에게 살해됨으로써 오이라트의 세력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이라트와 경쟁관계에 있던 달단부가 세력을 확장하여 다얀칸(達延汗)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몽골전체를 통일하게 되었다.

이때가 에센이 죽은 후 30년이 되는 시기였다. 에센이 죽은 후 다얀칸이 등장하기 까지 30여년 동안 북방의 초원지대에는 통일된 세력이 없었다.

가정 3년(1524) 8월. 대동(大同)에서 병란이 일어나 순무도어사 장문금(張文錦)이 살해되었고, 가정 12년(1533)에는 같은 대동에서 총병 이근(李瑾)이 살해되었다. 그런데 대동이란 곳은 몽골군에 대한 명나라의 중요한 방위기지였다.

가정 21년(1541). 알탄 칸은 삭주로 부터 안문관에 침입하여 태원을 유린하고 노안, 심주, 분주등 산서지방을 거쳐 하북 깊숙이 침공하였다. 이

번 침공에서 명나라는 20여 만명이 살상되고, 가축 2백만 필을 약탈당하는 참상을 맛 보았다. 알탄 칸의 남침은 이에 그치지 않고 마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었다.

가정 29년(1550)에는 대동에 침입하여 총병 장달을 죽이고, 고북구(古北口)를 거쳐 통주, 백하를 유린한 다음 마침내 북경성을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각지로 부터 급히 원군이 달려 왔기 때문에 알탄 칸은 북경을 포위한지 며칠 후 포위를 풀고 철수하였다.

알탄 칸의 북경포위는 명왕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사건으로 경술(庚戌)의 변이라 불린다.

(이상은 김희영 선생님의 저서 "이야기 중국사(권3)" 중 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이 게시글은 편집양이 많아서 부득이 Series로 편집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후속편으로 "꺼져가는 촛불을 살리다 (六)-2"가 이어집니다.그리고 중국 지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중국 역사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중국 지명을 중국어로 소개하겠습니다.

한 국 어

중국어

- | | |
|-----------|--------------|
| 1. 귀 주 성 | 구이저우(貴 州 省) |
| 2. 운 남 성 | 윈 난 성(雲 南 省) |
| 3. 사 천 성 | 쓰 찬 성(四 川 省) |
| 4. 호 북 성 | 후베이성(湖 北 省) |
| 5. 호 남 성 | 후 난 성(湖 南 省) |
| 6. 섬 서 성 | 산 시 성(陝 西 省) |
| 7. 강 소 성 | 장 쉰 성(江 蘇 省) |
| 8. 산 서 성 | 산 시 성(山 西 省) |
| 9. 하 남 성 | 허 난 성(河 南 省) |
| 10. 하 북 성 | 허베이성(河 北 省) |
| 11. 광 서 성 | 광 시 성(廣 西 省) |
| 12. 절 강 성 | 저 장 성(浙 江 省) |
| 13. 복 건 성 | 푸 첸 성(福 建 省) |
| 14. 산 동 성 | 산 동 성(山 東 省) |

15. 광 동 성	광 동 성(廣 東 省)
16. 청 해 성	칭하이성(青 海 省)
17. 요 동	랴오우둥(遼 東)
18. 강 서 성	장 시 성(江 西 省)
19. 요 녕 성	랴오닝성(遼 寧 省)
20. 길 림 성	지 림 성(吉 林 省)
21. 흑룡강성	헤이룽장성(黑龍江省)
22. 영 하 성	닝샤오성(寧 夏 省)
23. 안 휘 성	안후이성(安 徽 省)

(六)-2

○. 조선왕을 교체하다

14대 선조(1592년). 정부가 동이민족의 역사를 조작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나가자, 일부 지도층을 비롯하여 전국민이 삼삼오오 모여 정부의 역사조작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배후에 든든한 후원자를 두고 있는 조선왕조는 이에 개의치 않고 역사조작을 밀어 부쳤다.

역사조작은 영토축소를 의미한다. 이미 선조 이전에 섬서성 서안, 감숙성 동북부, 그리고 강소성의 남부지역을 잃었다.

당시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이것을 정부의 무능력 탓으로 돌렸고, 조선 정부의 교활한 기만책임을 알지 못했다.

백성들은 선조의 역사조작으로 인하여 그 동안 명나라에 잃어버린 영토가 조정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음모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소문이 저 멀리 대륙 남부지역에 살고 있는 고구려 유민들에게 전해 졌다. 그들이 대륙의 어느 지방보다도 더 폭력적이고 강경한 반항으로 나온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의 민심이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때에 명나라로 부터 농민폭동 소식이 전해 졌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적 반란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초기 조선은 고려의 강역을 그대로 이어 받았기 때문에 대륙에는 수 많은 동이민족이 살고 있었고, 대륙의 정세변화는 즉각적으로 조선에 영향을 끼쳤다.

반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대마도와 오키나와에 거주하고 있던 왜구(당시 해적)들을 국내로 끌어 들여 반란진압에 나섰으나 역부족으로 사직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명나라는 조선을 구원할 처지가 못되었다. 대신 모문룡이라는 유능한 장수를 조선에 파견했고, 선조는 그를 가도(假島)에 머물게 했다.

당시의 한반도환경은 산이 높고 험하며 울창하여 각종 맹수들의 서식처가 되었고, 반란군들의 대정부투쟁을 위한 교두보와 피난처를 제공했다.

투쟁이 장기화 하자, 한반도에 상륙한 왜구들은 거의 전멸상태에 놓였고, 정부군의 일부가 반란군에 가담하는 바람에 왕조의 운명은 바람앞에 촛불 이었던 것이다. 이때가 1600년 경이다.

만약 조선왕조가 여기서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 선다면, 명나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이씨조선의 건국자체가 명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한반도의 새 왕조가 명나라를 지지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선조는, 200여년 전 건국 당시 태조가 신라 후손의 도움으로 주원장의 지지를 받았던 것 처럼, 또 다시 신라 후손을 앞세워 미개한 여진족을 훈련시킨 후 그들의 선봉장이 되어 대륙정벌에 나섰던 것이다.

광해군과 신라후손이 여진족을 훈련시키고 귀국한 것은 누루하지가 최초로 애신각라(愛新覺羅)라는 국가를 건국하기 한해 전인 1605년이 되는 해였다. 선조는 광해로 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은 후, 누루하지가 건국하는 즉시 왕좌를 물려 주기로 광해를 비롯한 최측근 중신들과 비밀리에 합의를 했다.

더 이상 선조가 보위를 지킬 수 없을 만큼 국내사태는 최정점을 향해 달려 가고 있었고,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 왕조가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1606년. 누루하지가 여러부족을 통합하여 국호를 애신각라로 정하고,

이를 천하에 선포했다. 누루하지가 최초로 나라를 건국하는데는 광해군과 신라후손의 현명한 지도와 설득력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다.

누루하지는 당시 아들이 16명이나 되었으며 출전을 앞두고 후계자도 지명하지 않고 서둘렀다는 것은 그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 만큼 조선과 명나라의 사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애신각라를 건국한 후부터 그의 손자가 중국천하의 주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 본다면, 위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비록 광해군과 신라후손의 가르침대로 일단 국가를 세웠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국력으로 보나 도저히 중국천하를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의 토대가 반석위에 놓여 있을 때, 후계자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명나라가 조선의 영토를 계속 침입해 들어 오자, 선조는 더 이상 역사조작을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선조 자신이 지금까지의 동이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직접 경험했고, 또 명나라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역사조작을 후대로 미룬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고 장담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미 영토는 줄어 들었다. 문제는 서류만 정리하면 된다.

그리고 명나라는 초기에 동양에서는 제일 먼저 폴투갈로 부터 대포를 수입하여 원(元)나라를 중원에서 몰아 내는데 사용했고, 말기에는 화란으로 부터 대포를 수입하여 북원(北元)과의 전투에서도 사용했다.

15세기 후반 부터 대서양과 인도양의 패자는 포르투갈, 이스페냐, 화란 등 이었고, 이들은 동양으로 눈을 돌려 마카오, 대만, 그리고 동인도 제도(인도네시아)를 식민지화 했다. 15~16세기는 서구세력이 대포를 앞세워 동양으로 진출하던 시기이고,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세계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다.

이러한 세계정세변화를 파악한 선조는 북원이 잃었던 중국대륙을 되찾을 수 없다는 확심감을 가지고 동이민족 역사조작을 강행했던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에 경술의 변(1550년)을 측근으로 부터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선조는 대륙에서 농민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이제 그가 믿을 곳은 아직 미개발상태에 있는 동북의 여진족 밖에 없었다.

1608년에 선조가 죽자 광해군이 즉위했다. 많은 중신들이 그의 즉위를 반대하고 나섰으나, 인목대비를 비롯한 몇몇 중신들이 선조의 유조(遺詔)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왕위계승 문제를 밀어 부쳤고, 그의 왕위계승은 사전에 각본에 따라서 연출된 연극이었다.

또한 그가 아니고서는 현재의 위기를 넘길 수도 없으며, 앞으로 한반도와 중국대륙에서 펼쳐질 조선, 명, 그리고 후금의 각축전을 각본에 따라 진행 할 수도 없다. 이것은 왕위계승에 관한 예법의 문제가 아니고 사직의 운명에 관한 중대사다.

여진족이 최초로 세운 애신각라(愛新覺羅)는 국가의 토대가 매우취약하여 국가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로부터 10년 후 누루하지는 1616년에 국호를 애신각라에서 후금으로 개칭한 다음, 명나라의 7대약을 거론하며 조선군과 함께 명나라 국경을 침범했다.

광해군은 1619년 1월 말경에 강홍립을 총사령관으로 삼고 2만여명의 조선정예군을 후금에 파병했고, 누루하지는 조선의 지원군과 함께 연합군을 편성한 다음 명나라와 일전을 벌여 대승했다. 이것이 사르후 전투이며, 후금이 명나라의 대군을 격파한 최초의 전투였다. 이 전투는 요동반도를 수중에 넣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전략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르후 대전은 명나라 만력(萬曆)47년(1619), 후금의 천명4년3월의 일이었다(누루하지 재위14년).

광해군의 파병은 조선군이 반란군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였고, 이들 지원군은 전투경험이 풍부한 베테랑급

이었다.

국내사태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급박했고, 조선왕조가 기
델 곳은 후금밖에 없었다. 그러나 광해군이 보위에 앉아 있어서는 후금
이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

그리하여 광해군의 폐모사건을 거론하며 이괄일당이 난을 일으켜 광해군
을 몰아내고 선조의 서손인 능양군을 보위에 앉혔다. 이것이 1623년에
일어난 인조반정이다.

인조가 보위에 오르지 4년 후, 1626년9월30일에 후금의 누루하지가 산
해관 전투에서 사망했다. 16명의 아들들 가운데 8번째인 흥타이지가 칸
에 오른것은 1626년(인조4년)이다.

흥타이지가 칸에 오른 그 이듬해인 1627년1월13일 새벽, 그는 강홍립을
필두로 2만여명의 조선군과 함께 대군을 몰고 조선을 침략하여 위기에
처한 조선왕조를 구했다(이 대목은 역사가 이이화).

광해군 시절에 역사상 최초로 후금에 파병되었던 2만여명의 조선
정예군은 사르후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곧 바로 귀국하지 않고
흥타이지가 막북의 북노를 토벌할 때 여진족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참전하였고, 아이러니칼하게도, 후금의 조선침략군에 섞여서 조국을 침
략하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흥타이지가 칸에 오르지 1년도 못되어 조선침략에 나

섯겠는가?. 이것이 정묘호란(丁卯胡亂)이다.

홍타이지에게는 조선의 위기도 구해야 하고, 또 명나라도 침략하여 중국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사실상 이와같은 엄청난 일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삼국의 사전각본에 따른 연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홍타이지가 대군을 몰고 조선침략에 나섰을 때, 텅 빈 후금의 본거지를 명나라의 일개 장수가 점령해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역사를 조작한 학자가 미처 이점은 생각지 못했었던 것 같다.

조선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511년(중종 6년)이다. 조일전쟁 때 700~800만 명으로 줄었다가, 1642년(인조 20년) 다시 1000만 명을 회복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거의 800~900만 명 정도 되었고, 만주의 후금은 겨우 50~6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던 신흥 소국이었다.

인구만 해도 15배 이상 되는 나라가 붙는데로 깨지니 이걸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인데, 그 첫째 원인은 비겁하고 무능한 임금이었다. 그냥 선조(14대)를 판에 박은것이 인조였다.

[이 대목은 백지원 선생님의 저서 "왕을 참하라(상권)"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여진족 사회

1577년 총인구 10만을 넘지 못했던 만주족은 인근 부족들을 점령한 뒤에는 40~50만에 달하게 되었다. 1599년에 몽고문자를 차용한 만주문자를 만들었고, 1616년에 이르면 누루하지의 세력은 북으로 흑룡강 중하류와 우수리강 유역 까지, 동으로는 조선의 육진, 남으로는 관전(寬甸), 서쪽으로는 요동변장(遼東邊牆)에 이를 정도, 여진거주지역 대부분을 그 세력 하에 두고 있었다.

누루하지는 1616년 정월 초하루에 한(汗)위에 올라 국호를 "金" 연호를 "천명(天命)"이라 하였다. 국호를 "金"으로 정한 것은 이전의 여진족이 건립하였던 금왕조를 계승한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명조에 대한 독립선언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1618년에 그는 명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칠대한(七大恨)이라는 명조가 범한 7가지 죄상을 열거하고 무순성(撫順省)을 선제공격하여 약탈하였다.

생각지도 못한 공격과 패배에 놀란 명조정은 다음해 3월, 조선의 원군까지 포함한 십수만의 대군을 파병했으나 무순 부근의 사르후(薩爾滸)전투에서 섬멸되고 말았다. 이 전쟁은 후금과 명조에 있어서는 요동통치권 장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투였다.

이 결전에서 압승한 누루하지는 이후 개원(開原)과 철령(鐵嶺)을 점령하여 명군의 방위선을 돌파하는 한편, 해서여진의 예허(葉赫)를 정복하여 요하 동부전역을 수중에 넣게 되었다.

이렇듯 사태가 급박하게 되자 명조정은 명장 웅정필(熊廷弼)을 요동전선에 파견하였다. 그는 누루하지의 공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으나 명조정 내부의 당쟁에 휘말려 면직됨으로써 이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지게 되었다. 누루하지는 파죽지세로 심양과 요양을 점령함으로써 광대한 요동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621년에 허투알라에서 요양으로 천도하여 동경성(東京城)을 건설하였다. 1625년(天命10)에는 심양으로 다시 천도하여 성경(盛京)이라 개칭하였다.

성경(盛京)에는 노복매매시장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노복 1명의 가격이 포 30필(疋) 또는 소 15두(斗)였다. 그들은 가옥과 더불어 매매되기도 하였고, 처가에 지불하는 지참금으로 신랑과 함께 출가(出嫁)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복을 부세대신 납부할 수도 있었다. 노복은 자유나 인격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구타당하거나 주인의 사후 우마와 함께 순장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노복들이 한꺼번에 도망가는 사건도 빈번해져, 1673년에는 순장금지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자유민 신분인 후금의 장정은 계속하여 전쟁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노복은 농경에 종사하면서 병사와 평민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된 존재였다.

누루하지가 성공적으로 여진부족을 통일하고 요동에서 명세력을 축출할 수 있었던 것은 혼인으로 여러부족과 혈연관계를 맺어 세력을 확장하는 한편, 만주장정으로 편성한 강력한 군사조직인 팔기제도(八旗制度)를 성공적으로 완비하여 정복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이 팔기제도는 1601년에 누루하지가 창설한 만주족의 독자적인 제도로 호구통계, 징집, 징세, 병력동원을 위한 행정제도인 동시에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적인 군사제도로써 중국정복과 통일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명대의 몽고초원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서부신강 준가르분지 일대의 어로도(Oolod:厄魯特)몽고, 바이칼호 이남 오로도스(Ordos:河套)와 북쪽의 칼카(Khalkha:喀爾喀)몽고, 그리고 동부사막 이남의 막남(漠南)몽고 인데, 칼카몽고는 외몽고, 막남몽고는 내몽고로도 불리었다.

후금이 명조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나 병력의 보충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먼저 내몽고를 통합해야 했다.

따라서 이를 절감한 누루하지는 동맹이나 결혼정책등을 통해 몽고의 각 부족을 귀속시켰고, 귀순자들에게는 작위를 하사하거나 팔기에 편입시켜 우대하였다. 당시 홍타이지의 후금은 조선, 명, 몽고에게 삼면으로 포위 당해 있는 형국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명조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먼저 조선과 몽고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특히 조선은 임진왜란 때 원조해 준 명조와 대단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만약 후금이 명조를 공격할 경우 배후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았다.

1627년(天聰, 원년)의 조선정벌은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이루어 졌다. 홍타이지는 조선으로 출정한 장수에게 동정(東征)목적의 하나는 조선을 항복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압록강 하구 가까이 조선령의 섬인 가도(假島)에서 조선의 지원을 받으면서 군영을 개설한 명의 장군 모문룡(毛文龍)을 토벌하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아미와 지르갈랑(Jirgalang:濟爾狎郎) 버일러 등은 3만여명의 팔기병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의주(義州)를 공략했고, 동시에 일부 병력은 모문룡의 근거지인 철산(鐵山)을 공격하여 그를 가도에 고립시켰다.

[이상은 임계순 선생님의 저서 "청사(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이 게시글의 후속편으로 "꺼져가는 촛불을 살리다(六)-3"가 이어집니다.

● . 참 고

1) 말코폴로

마르코가 원제국을 제2의 고국으로 여겼다는 증거는 풍부하게 남아 있다. 몽고족이 한족을 의심했기 때문에 외국인을 많이 고용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항저우(杭州:킨사이)를 열정적으로 묘사했다.

"밀리오네"의 일부판본에 따르면, 마르코는 1282~87에 양저우(揚州:강소성)라는 도시를 다스린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험을 기록한 여행기(밀리오네)는 흔히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리학의 고전이 되었다.

(이상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권23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2) 팔 기 군(八 旗 軍)

아마 여러분은 영화에서 미국 서부개척시절에 기마대 맨앞에서 한 손에 큰 부대기를 들고 나팔수의 나팔소리에 맞춰서 힘차게 앞으로 달려

나가는 모습-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기(旗)를 8가지 색깔로 만들어서 군대의 부서를 구별할 수 있도록 8개의 기마부대를 창설한 것을 팔기군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식 군대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봉건시대의 군대 모습을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봉건시대의 군은 장수(將帥)를 중심으로 수백 또는 수천의 장졸들이 하나의 부대를 형성했습니다. 남보다 힘이 세거나 무예가 출중한 사람이 병사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기술보다도 힘을 위주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보다 힘이 센 사람이 싸움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병졸의 수에 의해서 장수들의 역할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식량운반은 장수들 중에서도 뛰어난 장수가 이끌었던 것입니다.

선봉장이 이끄는 부대가 공격부대이고, 황제나 왕이 이끄는 부대가 본대이고, 그 다음이 보급부대가 따랐고, 그리고 맨마지막으로 식량부대를 보호하는 후미부대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행렬이 군대의 수에 따라 수 백리 까지 뻗치게 됩니다.

이러한 군대조직도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소 변경되기도 합니다. 성을 공격할 때 마차에 투석기(投石機)를 달아서 큰 돌을 쏜다든가, 큰 나무의 한쪽을 뺏아내 버린 후 바퀴를 달아서 성문을 부순다든가 할 때, 이들은 별도로 한 부대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14~15세기가 되면, 인구가 많이 증가하여 군조직을 개편하지 않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고, 또 이 때에 서구의 현대식 무기인 대포가 동양에 소개될 때입니다.

대포와 소총은 군대가 일렬종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는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즉 편대로 서서 사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시 여진족은 인구가 겨우 40~50만명 밖에 안되었고, 전통적 동물사냥 방식인 몰이형식의 전법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이런 몰이식 전술은 유목기마민족인 흉노를 비롯하여 몽고족들이 구사하던 전투방식입니다. 치고 빠지는 전술이 그들의 주특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전술은 주변환경이 미개발상태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목나무들이 뺏뺏히 하늘 높이 솟아 있고, 수풀과 넝쿨이 우거져서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도피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환경도 많은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 때가 서구문명이 동양으로 진출하던 시기이고, 명태조 주원장이 서구로부터 대포를 수입하여 원나라와의 전쟁에서 그 효능을 시험하고 있었

을 때입니다.

당시의 명나라의 인구는 약 5000~6000만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인 명나라 만력제 때의 인구가 8000만명이었기 때문에 위의 숫자는 대략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포를 사용하려면, 20여명의 병사가 달라 붙어서 한발이 발사될 때마다 포신을 닦고 재충전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포탄이 적진지에 떨어지게 되면, 그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때에 포대 앞에서 멀리 떨어져서 적과 대치하고 있던 팔기군 중 붉은 기빨부대가 질풍노도처럼 적진으로 돌격하여 적을 도륙합니다. 일진이 귀대하면, 때를 놓치지 않고 노란기빨의 제2진이 돌격하여 적을 도륙합니다. 이런 작업을 적이 완전소멸할 때 까지 반복합니다. 이런 전술을 수행하기 위하여 팔기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기군은 청나라의 군사제도가 아니라 명나라의 현대식 군사조직이었던 것입니다. 명나라는 이 팔기군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반란을 한 곳으로 집중시킨 다음 섬멸했던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청나라가 팔기군을 보유하고 있다해도, 소총과 대포로 무장한 명나라 군대를 이길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나라가 반란에 직면해 있었다 하더라도 문명이 훨씬 앞선 나라를 미개한 민족이 정복한다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팔기군의 색(色)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정 황 기(正 黃 旗) | 5) 양 황 기(양 黃 旗) |
| 2) 정 백 기(正 白 旗) | 6) 양 백 기(양 白 旗) |
| 3) 정 홍 기(正 紅 旗) | 7) 양 홍 기(양 紅 旗) |
| 4) 정 남 기(正 藍 旗) | 8) 양 남 기(양 藍 旗) |

[양기(양旗)란 황,백,남, 세 깃발의 둘레에다가는 붉은 색을 두루고,
홍기에다가는 흰둘레를 두르는 것이다]

(이 대목은 백양(柏楊)지음, 김영수 옮김 "맨 얼굴의 중국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3) 가 도(假 島)

압록강하구의 가도는 무역상선이 많이 통과하는 곳이므로 모문룡은 이
들 상선으로 부터 통행세를 징수하였다.

또 가도에서는 밀수상품이 비밀리에 거래되었는데, 이들 상인들은 사전
에 모문룡에게 응분의 상납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 명나라의 제도상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는 반드시 문관을 파견하여 감독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모문룡은 특수한 사정을 핑계삼아 문관의 파견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해서 가도일대는 밀수기지화 되었다. (이상은 김희영 선생님의 저서 "이야기 중국사"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4) 하멜 표류기

1628년 한반도에 처음 도착한 서양인은 네델란드선원 벨테브레이다. 벨테브레는 원래 조선에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조선에 표류하게 되었다.

그는 총기 제조기술자이고, 아마도 일행과 함께 일본에 가서 총기제조 기술을 전수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가 일본에 무엇 때문에 가려고 했는지와 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얻어 낸 조선관리는 그를 훈련도감 소속의 직원으로 만들어 총포를 제작하도록 했다.

그로부터 25년 후인 1653년 또 다시 네델란드 무역선이 대만에서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선원 64명 중 28명을 잃고, 36명이 제주도에 도착하여 관원에 체포되었다.

이들은 이후 14년간이나 조선에 억류되어 있다가 8명이 탈출에 성공하여 1668년 고국으로 돌아 갔다.

그 중 한명인 하멜은 억류생활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멜표류기"를 썼는데, 여기에는 당시 조선의 정치, 군사, 풍속, 지리등이 서양인의 시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은 한반도를 서양에 소개한 최초의 문헌이다.

그런데 왜 서양인들은 조선에 오지 않고 하나같이 일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까?. 당시 조선은 중국의 속국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은 백지원 선생님의 저서 "왕을 참하라"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때에 네델란드가 동인도 군도와 대만을 식민지화 하던 시기이고, 명나라는 오래전 부터 화란으로 부터 대포를 수입했으며, 그들로 부터 총포제조기술을 전수받았고, 아울러 바다 건너 수만리에 있는 일본으로 건너 가서 총포제조기술을 전수하도록 교도(敎導)했던 것이다.

풍랑으로 배가 파손되어 표류하다가 타국에 도착한 것은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십수년간이나 옥살이를 시켰다는 것은 그들이 조선정부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을 석방한다면 왕조의 탈을 쓴 악마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난파된 무역선에 무엇이 실려 있었다는 것을 만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하멜이 타고 온 무역선에는 총포제조를 위한 많은 부품들이 실려 있었고, 총포제작 설계도도 포함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본이 최초로 네델란드와 국교를 맺은 해가 1609년이다.

이 때는 아직 서양과 동양의 정규적인 항로가 미개척 상태다.
양국의 문물교환은 이미 항로가 개척된 화란의 동인도 제도로 부터 이루어 졌던 것이다.

무역선에 실렸던 목록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사료(史料)인데, 이조 사관(史官)이 이들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들을 기록할 경우, 명나라와 당시 바다의 패자였던 스페인과 폴투갈과의 무기거래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네델란드와의 상품내지 무기거래 내역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이래서 고의로 누락 시켰던 것이다. 이는 선조대에 발생한 전국적 반란과 이조 말기에 나라를 일본에 헌신한 이씨왕조의 매국행위를 본다면 충분히 감지(感知)가 가능하다.

조선 정부는 이들이 왜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지를 이미 알었고, 그들은 이곳에서 총포제조기술을 가르치라는 정부의 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14년간의 감옥생활을 했던 것이다.

당시에 총은 최신무기이고, 이것을 일본이 만들어서 조선침략에 나선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억류시킨 후 귀국시켰던 것이다.

조선은 명나라를 신주모시듯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신하의 예를 다 하여 봉사했다. 이런 우호적인 이웃을 팽겨치고 수만리 떨어진 일본에게

최신 기술을 배우도록 배려한 명나라의 저의가 무엇인가?.

16.17세기는 서구세력이 이제 막 대양을 향해할 수 있는 돛단배와 대서양 지도를 가지고 상품판매를 위해 동양을 찾아 나설 때다.

여기에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참 뜻이 숨어 있는 것이다.

(六)-3

○. 이 자 성(李 子 成)

1605~1645 후베이성(湖北省)

중국명대의 마지막 황제 송정제(崇禎帝)를 재위에서 내 몰은 중국의 반란군 지도자. 1631년 대 기근 끝에 중국 북부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자 지방관이었던 이자성을 반란군에 가담했다.

그는 산시성 북서부에 사령부를 두고 스스로를 탐장(闖將, 맹장)이라고 불렀다. 뛰어난 군사 지도자였던 그는 차츰 부하들을 늘려 인접한 성(省)들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1639년 이후 몇몇 학자들이 이자성의 진영으로 모여 들었다.
이 학자들의 충고에 따라 휘하 군졸들에게 약탈을 금지시켰고, 몰수한 식량과 토지를 빈농들에게 나눠 주기 시작했다. 또한 그의 영웅적 자질에 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 일부러 퍼뜨렸다.
또한 자신의 지배아래 있는 지역에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하여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결국 1644년 대순(大順)왕조를 창건하고 초대황제가 되어 수도인 베이징(北京)으로 진격했다. 이자성은 송정제를 배신한 환관들에 의해 쉽게 수도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곳을 오래 장악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명에 충성하던 오삼계(吳三桂)가 북동부 변경에 있던 만주족을 중국으로 끌어 들여 명의 회복을 도모했기 때문이었다.
명과 만주족의 연합군에 의해 그는 수도에서 쫓겨나 중국 북부의 후베이 성으로 도망쳤으나, 그곳에서 지역주민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한다.
(이상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권18, P48 에서 발췌한 것이다)

○. 오 삼 계(吳 三 桂, 1612~1678)

중국 명말 청초의 무장.

장쑤성(江蘇省) 가오유(高郵)사람. 자는 장백(長白). 아버지 오양(吳□)을 이어 라오둥(遼東) 총병(總兵)이 되어 산해관(山海關)으로 진입하려는 청군과 싸웠다.

1644년 이자성이 베이징(北京)에 육박해 오자 명나라는 오삼계를 평서백(平西伯)에 봉하여 수도방위를 명했으나, 베이징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산해관으로 되돌아가 청에 항복하여 청군을 진입시킨후 이자성을 멸망하게 하였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오삼계는 평서왕(平西王)으로 산시(陝西), 쓰촨(四川)의 장헌충(張獻忠)의 잔당을 진압하고, 남명왕조(南明王朝)를 추격하여 영락제(永樂帝)를 죽이는 등 청의 전국통일에 이바지 하였다.

그러나 그 강대한 군사력과 독립재정, 윈난(雲南), 구이저우(貴州) 양성(省)을 중심으로 한 인재장악, 광산, 염정(鹽井)의 개발로 세력을 펴자 청나라의 경계를 받았다.

강희제(康熙帝)가 철폐령을 내리자 오삼계는 윈난에서 거병하여 주(周)나라를 일으키고, 이에 경정충(耿精忠:靖南王), 상지신(尙之信:平南王)이 호응하여 "삼번(三藩)의 난"을 일으켰다.

양쯔강(□子江) 남안에서는 우세했으나, 청군이 77년 부터 반격하여 오삼계의 부장을 회유하는 한편, 후난(湖南)과 광시(廣西) 양면에서 진격하였다. 78년 오삼계는 형저우(衡州: 湖南省 衡州)에서 재위에 올라 소무(昭

武)라 개원(改元)했으나, 그해 가을 병사하였다.

뒤를 이어 홍화라 개원한 손자 오세번(吳世□)도 81년말 쿤명(昆明)이 함락되자 자살하였다.

(이상은 한교 대백과사전 권 21, P597 에서 발췌한 것이다)

※ 이 게시글의 후속편으로 "꺼져가는 촛불을 살리다(六)-4"가 이어집니다.

(六)-4

○. 명나라 말기 사회

가) 천지 개벽할 농민 대폭동

16세기 말 명조는 내우외환으로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다.

번주토사(藩州土司)가 1589년(만력17년) 부터 10여년 간에 걸쳐 반명운동(反明運動)을 벌이고 있었으며, 1592년에는 영하(寧夏)소수민족이 봉기하였다.

주유검(송정제-명의 마지막 황제)이 즉위한 그해(1627년) 북중국 전역에서 가공할 만한 가뭄과 병충해가 들었다. 일반적으로 수해면적은 적은 편이지만, 가뭄이 일단 시작되면 땅은 모조기 풀 한포기 자랄 수 없는 불

은 땅으로 변한다.

가뭄은 또 예외없이 병충해를 동반한다. 이렇게 되면 재난은 가뭄이외의 지역으로 까지 확대되고, 천리 밖 푸른 밀밭과 풀이 있는 곳이면 메뚜기 등에게 며칠사이에 완전 초토화되고 만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팔며, 초근목피로 굶주림을 채운다. 사람들은 산속의 썩 같은 봉초(蓬草)를 뜯어다 먹고, 이마저 없으면 나무껍질을 벗겨 먹는다. 나무껍질에서 느릅나무껍질이 가장 좋지만 다른 나무껍질과 섞어 먹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것도 죽음을 조금 늦출 수 있을 뿐이다.

**정부가 인민을 이렇게 까지 비참한
상태로 몰아 넣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다.**

일부 지각있는 배고픈 인민은 살기위해 서로 모여 관가를 습격하고 부자들을 공격하여 먹을 것을 강탈했다.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섬서성에서 하남성으로, 무창에서 성도로, 전국이 들끓었다.

무장한 군중의 우두머리에는 장헌충(張獻忠)과 고영상(高迎祥)이 가장 유명했는데, 그들은 섬서성 안새현 부근의 굶주린 사람들이었다.

토벌은 군사행동이지만 부패한 명 정부군은 가는 곳마다 멋대로 강간, 살인, 방화를 일삼았으며, 그 정도는 굶주린 민란군이 관리와 지주들에게 가한 보복보다 더 심했다.

산서지구 총사령관(산서총병) 장응창(張應昌)의 군대가 죽인 사람은 반 이상이 난(亂)을 피해 도망 온 향민인데, 그들의 목을 가지고 논공행상을 벌였다고 한다.

(이상은 백양(柏楊)지음, 김영수 옮김 "맨 얼굴의 중국사"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그리고 과중한 세금부담은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압박하였고, 세금을 내지 못하면 도망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반란이 더욱 거세 졌다. 도망친 백성이 갈 곳은 반란집단 밖에 없었다.

백성들이 도망치면 농촌이 황폐하여 기근이 따르게 마련이고, 이 기근은 많은 농민들을 더욱 반란집단에 가세하게 하였다.

기근이 가장 심했던 곳은 하남과 섬서지방이었다.

섬서지방에서는 동원된 군대에게 군량을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마침내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들 반란군은 처음 왕가윤(王嘉胤)의 지도아래 고영상, 장헌충, 마수례(馬守禮), 나여재(羅汝才)등이 이끌었다. 그 후

두각을 나타내어 명왕조를 멸망시킨 이자성은 처음에 고영상의 부하로서 활약한 인물이었다.

반란군의 세력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자, 명나라 조정은 홍승주를 총사령관으로 임명, 대군을 동원하여 반란군을 토벌토록 하였다.

정부군과 대결에서 패한 반란군의 수령 왕가윤은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왕가윤이 죽자, 그의 간부였던 고영상이 다시 반란의 무리를 재집결시켰다.

조정에서는 홍승주를 병부상서(국방장관)에 임명했고, 그는 각지의 반란군을 하남에 몰아 넣어 일망타진할 작전을 세웠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하여 각지의 반란군은 하남의 형양(滎陽)에서 군사 회의를 열어 정부군에 대항할 대책을 논의 하였다. 구체적인 작전토의에 들어가자, 이들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마수례는 하북으로 돌아 가 정부군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장헌충은 그것은 자멸의 길이라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회의장은 자못 어수선한 분위기에 쌓였다. 이때 10만의 병력으로 연합작전을 펼칠것을 호소한 젊은 장령은 바로 이자성이었다.

반란군들은 연합작전을 형성하여 군사를 나누어 정부군의 공격에 대처한다는 구체적인 작전에 합의하였다.

일부 병력은 남쪽으로 향하여 사천, 호북의 정부군을 공략하고, 또 일부 병력은 서쪽으로 나아가 섬서지방의 정부군을 공략한다.

북쪽에도 일부 병력을 파견하여 황하를 견제하고 하남의 정부군과 대항하며, 일부 병력으로 기동부대를 편성하여 각지를 뛰어 다니면서 응원 내지는 유격전을 벌이기로 하였다.

분산되었던 각지의 반란군이 연합하여 통일된 작전계획으로 전투를 벌인 일은 중국 역사상 일찍이 없던 일이다.

만약 전국의 반란군들이 분산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면, 명나라의 팔기군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자성이 연합작전을 펼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장군하면 명군해야 한다. 명나라 총사령관 홍승주가 반란군들을 하남 지방으로 모은 후 일망타진하겠다는 작전정보를 고의로 누설했던 것이다. 그래야 이자성의 연합작전 주장이 반란군에게 용납이 될 수가 있다.

고영상, 장헌충은 주력부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향하여 정부군의 병력을 그쪽으로 유인하여 홍승주의 포위작전을 교란시키기로 하였다. 고영상, 장헌충의 연합군은 질풍노도와 같은 형세로 동쪽으로 진군하여 10일이 채 못되어 안휘성의 봉양성(鳳陽城)을 함락시켰다. 이 봉양성은 명태조 주원장의 고향으로 명나라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이다.

○. 밀 담(密 談)

대화자 : 송정제(명나라 마지막 황제)

홍승주(병부상서이며 대학사)

송 : 지금 백성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난 것은 조정의 탄압 때문이 아니오.

홍 : 그렇습니다

송 : 1636년에 청의 홍타이지가 조선을 침략하여 조선에 있는 생묘들을 전부 제거했다는데.... 맞소?

홍 : 전부는 아니고, 거의 전멸시켰다고 했습니다.

송 : 그렇다면 이제 뒤는 안심할 수 있겠구먼..... 그런데 문제는 남쪽의 생묘(生苗)들인데..... 이걸 어떻게 제거 하는 방법이 없겠소.

홍 : 생묘들도 명나라에 반기를 든 것이고, 청나라도 사실은 명을 타도하려는 것이니, 양자가 모-두 똑 같은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이 중국의 주인이 된 후, 생묘들을 토벌하려면 우선 명분이 서야 합니다. 즉 그들을 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송 : 어떻게 만들 수 있소

홍 : 청이 북경에 입성하게 되면, 명의 운명은 끝났으니까,
망명왕조(亡命王朝)를 남쪽에다 세우는 것이죠.

청이 일단 북경에 입성하게 되면 생묘들도 기가 한풀 꺾입
니다. 청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망명왕
조를 지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
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청이 망명정권을 타도한다는 기치를
내 걸고 생묘들을 도륙하는 것이죠

송 : 참으로 절묘한 계책이요. 그럼 그대로 추진하시오.

홍 : 황공하옵니다

※ 이 게시글의 후속편으로 "꺼져가는 촛불을 살리다(六)-5"가
이어집니다.

(六)-5

○. 홍타이지가 청을 세우고, 스스로 황제를 칭하다.

1635년 홍타이지는 성경(盛京)에서 자신들의 칭호였던 여진을 폐지하고 만주를 사용할 것임을 선포하였고, 허투알라를 흥경(興京)이라고 개칭하였다. 또한 다음해인 1636년5월15일에는 한(汗)대신 칭제(稱帝)하고, 다시 연호를 천총(天聰)에서 송덕(崇德)으로, 국호를 "金"에서 "대청(大清)"으로 개칭 선포하였다.

이는 여진사회가 부족사회로 부터 전제군주가 통치하는 사회로 한 단계 발전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같은 달 말에 공유덕을 공순왕(恭順王), 경중명을 회순왕(懷順王), 상가희를 지순왕(智順王)에 각각 봉했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1643년9월21일에 성경에서 급사하였다. 특별히 소집된 왕족회의에서는 6살 백이 아홉째 복임(福臨)을 황제로 추대했고, 어린 황제를 대신하여 누루하지의 열네번째 아들 도르곤(多爾袞)이 섭정왕(攝政王)이 되어 대리통치 하였다.

[이상은 사학자 임계순 선생님의 저서 "청사(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 40일 천하(天下)

1628년(崇禎, 원년)부터 근 20년 간은 이자성과 장헌창이 이끄는 농민봉기가 전 중국을 휩쓸었다. 이자성은 섬서성 연안부 미지현(延安府 米脂縣)의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뒤에 가세가 기울어 목동, 전호로 전전하다가 21세 되던 해에는 역졸(驛卒)이 되었으나 역전(驛傳)이 철폐되자 입대하여 감숙성에서 복무하였다. 그가 모반에 참여하게 된 것은 병졸들이 모반에 동조하면서 부터였다.

1631년에는 반란군인 고영상의 휘하에 들어 갔다가 고영상이 체포된 뒤 두목이 되었고, 이후 세력을 키워 1641년1월에는 낙양을 공략하여 만

력제(萬曆帝)아들인 복왕(福王) 주상순(朱常洵)을 살해하였다. 복왕은 막대한 토지를 가진 대 지주로서 횡포와 탐학이 심하여 백성들의 분노를 사고 있었다.

이자성은 복왕의 창고를 열어 쌀 수십만석, 금 수십만 냥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은 "만세! 만세!" 환호를 외치며 이자성을 황제처럼 환영하였다.

같은 해 11월 이자성은 낙양을 함락하고 당왕(唐王)주율막(朱聿膜)을 주살하였다. 송정 15년(1642) 9월에 개봉을 함락하고, 그 이듬해(1643)정월에는 승천(承天)을 함락하였다. 겨울에는 서쪽으로 진군하여 동관, 서안을 공격하고, 감숙, 섬서로 진출하였다.

송정17년(1644)정월 초하룻날 아침 서안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나라 이름을 대순(大順), 연호를 영창(永昌)이라 정하였다. 서안을 서경(西京)으로 삼아 장안(長安)이라 부르고 스스로 대순왕(大順王)이라 칭하였다.

이자성을 곧바로 동정군(東征軍)을 일으켜 2월에는 친히 보병 40만명, 기병10만명을 거느리고 용문(龍門)에서 황하를 건너 분주(汾州)를 공략하고, 산서 최대 도시인 태원(太原)을 함락하였다.

태원의 함락소식은 북경조정에 큰 충격을 던졌다. 승승장구 파죽지세로 정부군을 몰아 붙인 이자성의 대순군은 북경 40킬로미터 지점 까지

육박했다. 3월18일 대순군은 변절한 명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노도처럼 성안으로 몰려 들어 갔다.

이로써 명나라는 송정제17년, 277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자성이 태원을 함락하였을 때, 명나라 총사령관 왕영길(王永吉)은 관외(關外, 산해관 밖)의 4성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정예 부대를 가장 유능한 총병 오삼계(吳三桂)에게 주어 북경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삼계는 왕영길의 주장에 따라, 50만의 정예군을 거느리고 북경으로 향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오삼계가 풍윤(豐潤)에 도착했을 때 이자성은 이미 북경을 함락한 후였기 때문에 그 이상 진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순왕 이자성은 송정제와 주황후를 황제, 황후의 예로써 장사 지냈다. 그리고 수백명의 관리를 하북, 하남, 산서, 산둥, 섬서, 사천, 강소, 호북등지에 파견하여 지방정권의 귀순에 힘을 기울였다.

이자성의 북경점령을 기정사실로 판단한 각 지방의 주둔군과 행정기관은 이자성의 신정권을 지지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맹세의 문서를 보내느라 분주하였다.

이자성은 산해관 수비대장 오삼계의 동정에 신경을 곤두 세웠다. 산해관은 만주족의 중국침입을 견제하는 동북지방의 최후보루로서 50만명의 대군을 거느린 오삼계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었다.

오삼계는 이자성의 수 차례에 걸친 회유(懷柔)을 뿌리치고, 청의 도르곤에게 항복의사를 전달하였다. 당시 청군을 이미 14만 병력을 이끌고 산해관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었다.

오삼계는 마침내 명조를 멸망시킨 이자성을 타도하기 위하여 도르곤으로부터 관직과 부귀를 보장받고, 청조에 투항하였다.

한인 귀순자를 우대했던 홍타이지의 정책을 답습한 도르곤은 1644년(順治, 원년) 5월 27일 오삼계를 평서왕(平西王)에 책봉했고, 오삼계는 4만의 정병을 거느리고 산해관에 도착한 청군에 합세하였다. 도르곤을 더욱 강력해 진 18만 대군을 인솔하고 북경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이자성군대가 6월 4일 북경을 포기하고 섬서로 도주하자, 청군은 6월 6일 북경성에 진입하였다. 태종 홍타이지를 계승한 6세의 어린 황제 순치(順治)는 숙부인 도르곤과 함께 10월 19일 북경 정양문(正陽門)을 통과하였다.

40일 천하는 이자성의 대순군이 1644년 3월 말경에 북경에 입성한 후부터 1644년 6월 초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청조정은 북경천도 이후 바로 군사를 보내어 이자성의 군대를 공격하기로 하고, 1644년(順治, 원년) 11월 말 섭정왕 도르곤의 형제들 가운데 아지거(阿濟格)를 정원대장군(靖遠大將軍)에, 도도(多澤)를 안국대장군(安

國大將軍)에 임명하여 출정시켰다.

이자성은 북경을 탈출하여 동관(潼關)과 서안(西安)으로 쫓겨갔고, 그가 파견했던 지방관들이 지주를 중심으로 한 무장집단에 의하여 살해되는 경우가 속출했으며, 정권내부에서도 알력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이자성은 호북과 강서의 경계인 통산현 구궁산(通産縣 九宮山)에서 촌민들에게 피살되었다.

그러나 그의 잔여부대는 호북과 호남지방에서 계속하여 활동하다가 이후 남명정권과 연합하였다.

한편 이자성과 함께 위세를 떨치고 있던 장헌충의 농민군도 청의 건국과 동시에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

청정부는 홍타이지의 맏아들인 숙친왕(肅親王) 하오거(豪格)에게 명하여 당시 사천에서 대서국(大西國)을 건국하고 있던 장헌충의 농민군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큰 타격을 입은 장헌충은 사천지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1646년 12월 서북의 봉황산(鳳凰山)에서 전사하였다.

한편 지도자를 잃은 잔여부대는 손가망(孫可望)과 이정국(李定國)의 인솔하에 운남과 귀주로 이동했다가 역시 남명정권과 연합하여 청군에 대항하였다.

[이상은 임계순 저 "청사 (만주족의 통치한 중국)"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남 명 왕 조(南明王朝)

명나라 말기에 전국에 가뭄이 들어 아사자(餓死者)들이 속출하여 여기 저기에서 신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했고, 정부의 오랜 탄압과 착취에 시달려 온 농민들이 그 동안 쌓였던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했다. 여기에 불을 붙인 민족이 서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묘(生苗)였고, 이 불은 점점 커져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농민봉기를 이끈 지도자들은 한인들이었고, 무능한 정부를 엮고, 새 왕조를 수립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대정부 투쟁에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민족인 여진족이 중국대륙의 주인이 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명나라 조정을 향하여 겨누었던 화살을 이민족인 청나라를 겨누지 않을 수 없는 사태로 변해 버렸다. 배고픔과 착취도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 중화인이 미개한 여진족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중화인이다. 그들은 약 200년간 이민족인 몽고족의 지배를 받았다. 이제 또다시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농민반란군의 지도자인 이자성과 장헌창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반란군을 재집결시킬 수 있는 구심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농민군들이 취할 수 있는 길은 반청의 깃발을 내세우는 것뿐이다.

청군에 의해서 북경성을 잃어 버린 명나라의 후손들은 농민폭동의 도화선이며, 가장 격렬하게 반항하는 남부지역에다 망명왕조를 세워 청나라에 대항하였다.

북경에서 축출된 명조의 충성스러운 관료와 유민(遺民)들은 1644년(順治, 원년) 5월 중순 남경에서 명 신종(神宗)의 손자 복왕 주유송(朱由崧)을 홍광제(弘光帝)로 추대하여 남명왕조를 수립하고 청조에 대항하였다.

명태조 9세손인 당왕 주유건(朱聿鍵)이 복건성 복주에서, 용무제(隆武帝)로 1646년에 즉위하였고, 노왕 주이해(魯王 朱以海)도 대주(臺州)에서 감국(監國)을 수립하였다. 또한 같은 해 복왕의 종제(從弟)인 계왕(桂王) 주유랑(朱由榔)이 광동성 조경(肇慶)에서 영력정권(永曆政權)을 수립하여 7개 성(省)을 통치하면서 15년간에 걸쳐 청조에 항전하였다.

청조가 장악한 북 중국의 영토는 중원지역의 1/3에 불과했다.

청조가 중원의 2/3에 달하는 남 중국정벌의 임무를 일단 오삼계를 비롯한 한인 장수에게 맡겼으나 이민족인 그들에게 모-든 것을 위협하기에는 불안했다.

한인으로 편성된 군대를 오삼계, 경중명(耿仲明), 공유덕(孔有德), 상가

희(尙可喜)등 한인 장수에게 맡겨 남 중국을 정벌하게 하고, 만인장군(滿人將軍)들을 그들의 보좌관으로 임명하여 감시토록 하였다.

1645년 청군은 하남에 병력을 집중배치하여 하북 운수교통망의 거점인 진강(鎭江)을 점령하고 양주(揚州)를 탈취한 뒤 남경을 향해 진군하였다. 청군은 별로 저항을 받지 않고 남경에 진입하여 복왕을 생포하여 북경으로 압송했다. 이로써 1645년 홍광정권(弘光政權)은 붕괴하였다.

그러나 가장 인망이 높은 방위군 지휘관이었던 사가법(史可法)은 양주(揚州)에서 청나라 장수 도도의 군대와 결사적으로 싸웠다. 청군이 3번이나 항복을 권고했으나, 그가 끝까지 저항하자, 청군은 몹시 분격하여 100만에 가까운 양주민(揚州民)을 도살했고, 계속해서 강음(江陰), 가정(嘉定)에서도 약탈과 살인을 자행했는데, 특히 가정에서는 세차례에 걸쳐 20만명을 도살하였다.

이 당시 양주사람 왕수초(王秀楚)는 "양주十日記"를 적어 10여일에 걸친 그의 체험을 기록했고, 주자소(朱子素)도 4개월 간에 걸친 청군의 학살을 "가정도성기략(嘉定屠城紀略)"에 자세히 기록했는데, 청조에 대한 이들 도시주민들의 결사적인 저항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청군은 먼저 1646년10월에 감숙을 함락시켜 노왕(魯王)을 해상으로 내

몰았고, 이어서 당왕(唐王)을 복건 정주(汀州)에서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1649년 오삼계,공유덕,상가희는 몇갈래로 나누어 동시에 남명정권 이정국세력을 공격하였다. 공유덕은 호남성을 거쳐 광서성으로 진군하였고, 경중명과 상가희는 강서성을 거쳐 광동성을 향해 진군하였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청조정은 이들 한인 장수들에게 관작을 수여하고 포상하였다. 1636년에 이미 공순왕에 봉해졌던 공유덕에게는 정남왕(定南王)을, 회순왕에 봉해졌던 경중명에게는 정남왕(靖南王)을, 그리고 지순왕에 봉해졌던 상가희에게는 평남왕(平南王)의 관작을 하사했는데, 이는 청조정에 충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삼계는 서부에서 감숙성,섬서성,산서성, 그리고 사천성의 반청세력을 평정하였다. 그러나 이정국의 저항은 필사적이어서 1652년에 서남의 묘족(苗族)등 여러 소수민족을 회유(懷柔)하여 세력을 확장했고, 광서성 계림으로 진군하여 정남왕 공유덕을 전사시켰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호남성 형양(衡陽)으로 진격하여 청의 경근친왕 니감(尼堪)을 살해하고, 계왕을 옹립하여 곤명(昆明)에 소왕정(小王廷)을 세웠다.

당시 남명정권의 대권을 장악하고 있던 마길상(馬吉祥)은 그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정국과 손가망사이를 이간하였다.

이후 손가망은 청의 대규모 병력을 거느리고 운남성(雲南省, 윈난성), 귀

주성(貴州省, 구이저우)의 남명요새를 향하여 진군하였다.

1658년1월 平西大將軍 오삼계가 사천성 서부로 부터 진격했고, 만인장군 자오부타(趙布太)는 광서성으로 부터 운남성과 귀주성으로 진군했으며, 홍승주가 통솔하는 한인군대와 만인장군 로토(羅托)와 도니(多尼)가 통솔하는 만인군대가 연합하여 호남성 동부로 부터 운남성과 귀주성을 향해 돌진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1659년1월에 마침내 운남성에 있던 남명의 수도 곤명(昆明)을 점령하였다.

이정국은 잔여부대를 이끌고 운남과 미얀마의 경계지역으로 철수했고, 그를 따라 피신했던 영력제 계왕은 오삼계군에게 잡혀 운남부(雲南府)로 끌려 와 1662년에 교살되었다.

계왕의 죽음을 전해 들은 이정국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이로써 청조는 중국 서남부 지역에 대한 정복사업을 완수하였다.

서남변방은 운남성, 귀주성, 사천성 일부지역으로 청 초에는 남명정권(南明政權)이 수립되었고,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의 영향력아래 놓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진압된 이후에는 번왕인 오삼계의 통치하에 속하게 되었다.

서북변방은 서장과 신강을 말하는데, 청조는 추후에 이들 지역도 영토로 편입하였다.

○. 삼번(三藩)의 亂

청조가 중원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한인 장수는 상가희, 경중명, 오삼계 등 3인이었다. 평남왕 상가희는 광동성의 조경(肇慶)의 영력(永曆)정권을 토벌한 뒤 1655년 부터 광동성에 주둔하였다. 사천성에 파견되었던 경중명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경계무는 정남왕으로 봉해져 복건성 복주에서 정권을 세웠던 당왕(唐王)을 축출하고 그 곳에 주둔하여 치안을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서왕 오삼계는 운남.귀주 지역을 평정했으며, 운남성의 곤명(昆明)을 근거지로 귀주성의 소수 민족을 토벌하고 행정.군사.치안을 담당하였다.

이들 오삼계,상가희,경중명의 군사통치구는 청조가 하사한 봉지가 아니라 임시로 설정된 지역이었으나 1662년 강희 원년에 이르면 이를 삼번(三藩)이라 부르게 되었다.

자고로 부패한 왕조를 엮고, 새 왕조를 세우는 사람은 대개 전 왕조의 신하들이다. 이는 과거 역사가 증명한다.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명나라와 조선은 오삼계를 간세로 만들어서 경중명과 상가희의 세력확장과 모반의욕을 잠재우도록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특히 오삼계는 생묘의 터전인 원난성(운남성)과 구이저우(귀주성)을 통치하여, 생묘들의 재봉기의 기회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자가 바로 광해군이 심어 놓은 조선의 첩자였던 것이다.

남쪽지방의 운남성과 귀주성의 생묘가 전국 반란의 도화선이며,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치하는 오삼계의 영향을 경중명과 상가희가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삼계가 삼번의 난을 주도했고, 두 사람은 오삼계의 술수에 걸려 그들의 푸른 꿈은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삼번왕인 경중명(耿仲明),상가희(尙可禧)외에 공유덕(孔有德)등은 모문 룡휘하에 있던 역전의 장군들로서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장수들이다.

처음에 오삼계가 흥명토호(興明討胡)의 기치를 내걸고 반청을 선포했을 때에는 직예.산서.하남.안휘등 성에서 커다란 반향이 일었고, 강남.서남.북서 등지의 한인 관료지주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하층 병사들도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하지 않았다.

삼번의 난은 오삼계가 내세운 구호와와는 달리 만주족에 대한 피정복 한인의 항거가 아니었다. 오삼계는 영력제를 체포한 전력이 있었으므로 복명을 주장할 대의명분이 없었다.

삼번왕들은 각 번(藩)을 다스리면서 권력을 맛보았고 그것이 위협받자 개인적 야심을 채우기 위해 반청을 선포한 것이었기 때문에 "흥명토호"의 구호는 한인들에게 그다지 설득력이 없었다.

더욱이 삼번이 자신의 통치구 내에서 정치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터무니없이 무거운 세금으로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청군이 진압에 들어가자 대부분의 백성들이 삼번의 항청에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일부 백성들은 청의 진압군에 참여하여 삼번을 토벌하기 까지 했다.

결국 삼번의 난은 1681년에 진압되고, 이후 청은 서북으로 진출하여 신장을 복속시켰고, 오늘날 중국의 광활한 영역은 이 때에 확정된 것이다.

[이상은 임계순 저 "청사(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중에서 일부를 발취한 것이다]

※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국의 역사서를 그대로 복사했고, 이것을 탐독하신 후 여러분들이 느끼신 소감과 판단을 본인이 장을 달리하여 작성하는 글과 대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가사의에 대한 본인의 해석(七)"을 끝으로 이 Series를 마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七)-1

여러분은 지금까지 중국 역사를 공부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역사를 현대감각으로 마치 소설처럼 작성하였다는 것을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당시에 발생했었던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기술하려니까 자연 소설처럼 서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것이 태어나게 된 동기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세상만사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태조 이성계는 건국초 다사다난(多事多難)하던 시기에 만사제체 놓고 민간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동이민족의 고대사를 수거하여 불태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이유가 없이 수거할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거했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전배경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할 동이민족의 참여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려는 전국에 4경을 두고 광활한 중국대륙을 통치했습니다. 고려의 수도는 북경이고, 서경은 섬서성 서안, 동경은 한반도의 개성, 그리고 남경이 강소성 양주(江蘇省 楊州)입니다. 이래야 광활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발해(渤海)는 전국에 5경을 두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고려의 4경인 것입니다.

발해만(渤海灣)은 당시 한반도의 개성과 산둥반도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들의 무역항로(貿易航路)였습니다. 물론 민간무역항로가 개설되기전에 군수송선들이 항해하던 바다였습니다.

또한 발해만은 AD660년에 백제가 신라와 해상전투를 벌였던 바다이며, 신라의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淸海鎭)이라는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중국대륙과 교역하던 바다이기도 합니다.

당시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가는 직항로는 바로 발해만을 거쳐서 산둥반도에 있는 항구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산둥반도 까지 대륙을 경유(經由)해서 우마차로 가는것 보다는 발해만을 통하여 선박으로 운항하는 것이 훨씬 시간과 돈이 절약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산둥반도 부근에 산해관(山海關)이란 관문(關門)

을 설치하여, 발해만을 통해 상륙하는 사람들과 동남부 지방에서 북경으로 가려는 백성들을 검문.검색하여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하남에서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는 국경방위대 역할도 담당했던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말하는 하남(河南)은 산둥반도, 하남성, 그리고 강소성의 중부이남을 가르킵니다. 즉 양자강 이남을 가리킵니다.

이 산해관은 조선초기에 명나라에 복건성 남경(南京:당시 응천)을 빼앗긴 후에 설치된 것입니다. 명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한 조선의 방어기지였습니다. 따라서 산해관을 지키는 장수는 조선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조작해 놓았는데, 당시 산해관을 지키는 장수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 이자성은 누구인가?

이자성은 섬서성 미지현 사람으로 역졸(驛卒)을 지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서성은 고려의 영역으로 당연히 그도 고려인입니다. 즉 조선인이라는 말입니다.

명나라 만력제 17년(1589)부터 시작된 농민반란의 주인공은 단연코 이자성입니다. 서남부 지방에서 부터 시작된 농민봉기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마치 벌집을 쭈셔 놓은 것 처럼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지역이 귀주성을 비롯하여 운남성,

후난성, 섬서성, 감숙성, 그리고 사천성등 주로 서남부 지역이었습니다.

반란군들이 연합작전을 펼쳤을 때, 그들의 우두머리는 왕가윤이었습니다. 왕가윤을 비롯하여 장헌창, 고영상, 마수례, 나여재, 그리고 이자성등은 전부 조선사람들 이었습니다.

농민봉기는 명나라 조정의 학정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관가를 습격하고 지주들을 공격하여 창고에 쌓여 있는 곡물들을 탈취하여 굶주린 배를 채우려는 행동 이었습니다.

농민봉기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 1589년 부터 대륙의 이곳 저곳에서 소규모 민란들이 일어나서 관가를 습격하여 창고를 부수고 곡물을 강탈했었지만, 곧 바로 진압되곤 했던 것입니다.

단지 농민들이 굶주림만을 해결할 목적으로 봉기를 하였다면, 그들은 관가를 습격하여 조정대신들을 죽이고 지주들을 잡아서 살해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굶주린 농민들이 명왕조를 엮고 새왕조를 세울 의도였다면, 성난 군중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보유한 자가 바로 모문룡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휘하에는 경중명, 상가희, 공유덕등이 있었습니다. 이 세사람은 당시 명나라의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명나라 만력제는 모문룡의 인간됨을 파악하고, 그를 조선으로 파견하여 반역의 싹을 미리 잘라 냈던 것입니다. 모문룡이 가도에 주둔하면서 저질은 만행들을 분석해 보면 그의 인간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 옆에 명장들을 둔다는 것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격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를 갈라 놓았던 것입니다.

산해관 총사령관인 원숭환은 모문룡이 가도에서 저질은 많은 악행들을 보고 받은 후, 그를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기회를 포착한 귀주성과 운남성의 생모들이 제일 먼저 봉기하여 관가를 습격하고 지주들을 공격했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민란이 전국으로 확대 되었던 것입니다.

명정부가 귀주(貴州)양응룡의 민란을 평정한 해가 AD1600년이다.

이 대목은 중국의 어느 역사서에도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인 사가 백양 저, 김영수 옮김 "맨 얼굴의 중국사"의 연표에만 위와 같이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고대 부터 현대 까지 발생했던 사건들을 연대별로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당시 무장한 반란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고영상과 장헌충이었습니다. 만약 반란군의 지도층이 명나라 사람들이라면 농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200여년 간 억눌려 왔던 동이민족의 쌓였던 분노가 때를 맞이하여 한꺼번에 폭발했던 것이며,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잃었던 땅을 되찾으려는 선조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기회를 잡았고, 또 일이 이 상태로만 진행된다면 명나라의 사직이 종지부를 찍는 것은 명확관화(明若觀火)한 일 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명나라가 포르투갈 상인들로 부터 수입한 대포와 소총으로 무장한 팔기군(八旗軍)이 있다 하더라도 전선없는 싸움터에서 비무장한 농민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팔기군의 장점은 대포부대를 후미에 배치하고 팔기군이 적과 마주하고 있을 때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적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전국으로 분산되어 싸우고 있는 반란군들을 상대로는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정부의 학정과 착취,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봉기하여 관가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지주들을 잡아 죽인 후 그들의 곡간을 부수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곡식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주린 배를 채웠다면, 그들의 이런 행동은 사전에 기획되거나 어떤 사람의 사주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굶주린 백성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봉기의 의사가 소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노한 백성들의 이러한 습격행위가 전국적으로 각 성(省)을 상대로 동시에 발생했었다면, 아마 농민폭동은 성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1960년4월19일에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서 용감하게 일어선 학생들의 의거에서 증명이 되었든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성(省)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퍼부어야 명나라 조정이 손을 쓸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농민폭동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륙에 거주하고 있었던 고려인들 즉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잠식해 들어 오는 명나라의 부당한 행동을 보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조선정부에 대한 반감과 명나라의 영토침범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말기에 일어나는 정부의 부정.부패와 착취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가뭄까지 겹쳐 한꺼번에 폭발했던 것입니다.

초기 고려의 영역은 하북성, 하남성, 산서성, 섬서성, 산둥성, 안휘성, 그리고 강소성 이었고, 내몽고의 중부와 북부, 만주전역, 그리고 한반도 전역 이었습니다. 대륙의 1/3을 고려가 차지했고, 원나라는 절강성을 비롯하여 복건성등 주로 대륙의 동남부지역, 남부지방, 사천성, 청해성, 서장, 신장등 유라시아 전역을 석권했던 것입니다.

원나라의 강역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지식이 부족하여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유라시아 유목민의 전체 역사를 간추려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당시는 유라시아와 중국대륙에는 원나라와 고려만이 존재했고, 다만 만주대륙의 동북부지역에 여진족이 살고 있었뿐입니다. 이와같은 사전지식을 가지고 당시 중국대륙의 정세를 읽어 가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잘 알고 있는 명나라 지휘관들은 반란군을 하남으로 몰아 넣어서 일망타진하는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반란군 지도부가 이러한 작전에 말려 든 이유는 팔기군의 장단점을 모르고, 다만 적이 대포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전을 실행에 옮기도록 유도한 인물이 바로 이자성이었던 것입니다.

이자성과 오삼계는 광해군이 심어 놓은 조선의 첩자였습니다. 만약 이자성이 명나라 관료라면 조선인으로 구성된 반란군 지도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 북경성의 성주는 누구인가?

북경성의 수비대장은 바로 오삼계입니다. 그는 명나라가 농민폭동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그리고 후금의 흥타이지가 칸에 오르던 해인

1626년에 광해군의 밀명을 받고 부임한 북경성 총사령관이었던 것입니다.

대륙 동남부 지역의 적이 고려의 수도인 북경을 공략하려면 반드시 산해관을 거쳐야 되며, 또한 발해만을 경유해서 한반도의 서해안에 이르기 위해서도 산해관을 통과해야 하는 그야말로 전략상 중요한 군사기지였던 것입니다. 이 산해관을 지키는 장수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의 역사서는 산해관의 수비대장이 명나라의 유명한 장수인 원숭환이라고 기록했고, 또한 후금의 누루하지가 산해관 전투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북경을 명나라의 수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또 누루하지가 산해관 전투에서 사망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산해관은 산둥반도 동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압록강 하구에 있는 가도와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가도에는 명나라의 장수 모문룡이 주둔하고 있었고, 당시 포르투갈로부터 수입하는 대포를 청나라에 공급해 주는 밀수기지였습니다.

명나라의 수도는 북건성 남경(南京:당시 응천)입니다. 주원장이 나라를 건국한 장소가 응천(應天)이었고, 추후에 이곳을 남경으로 변경했습니다.

영락제 9년(1421)에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한 후, 남경을 제 2수도로

삼았다고 중국사는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일본의 천자 이에야스가 최초로 네델란드와 국교를 맺은 해가 케이초 14년(1609)입니다. 원래 이에야스는 명나라와의 국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야스는 측근을 통해 당시 일본의 나가사키 지방에 와 있던 푸젠성(福建省)의 상인 주성여(周成如)하여금 푸젠성 총독에게 편지를 쓰도록 했고, 주성여가 일본의 어느 항구에 도착하든지 간에 모든 편의를 돌봐 주도록하라는 공문서를 각지에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명나라 수도 응천부(應天府)사람 주성여가 마침 고토(五島)에 왔다가 가미가타로 올라오게 되었다. 명나라 푸젠의 상선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가사키에 정박하니 선주 뜻에 따라 서로 물품을 교역하고 대도시를 연다면, 어찌 두 나라의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태조 주원장은 마카오로 부터 들어 오는 포르투갈의 대포로 팔기군을 편성하여 당시 세계를 제패한 원나라를 절강성(저장성)에서 몰아 내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원나라의 수도가 절강성 항주(浙江省 杭州)였습니다.

반란군 지도자들이 연합작전을 편 후, 고영상과 장헌충의 연합군이 동쪽으로 진군하여 안휘성 봉양성을 함락시킨 곳이 바로 명태조 주원장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 전투에서 고영상이 사망하고, 그의 뒤를 이자성이 이었던 것입니다. 진 중에 간세를 두고 작전을 편다는 것 자체가 자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영상과 장헌충은 반란군 지휘관으로 같은 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헌충은 고영상이 전투 중 어떻게 해서 전사하게 되었는지를 눈치챈 것입니다.

그러나 장헌충은 이자성의 밀정을 잡거나 고영상의 작전미스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 고영상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에서 뭔가를 냄새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증거도 없이 이런 불명확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반란군 지도자들에게 이야기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영상의 부대와 결별을 고하고, 서쪽으로 이동하여 사천성에 주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영상과 같은 급의 지휘관이 고영상의 부하와 함께 작전을 논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홀로 남은 이자성의 군대가 남경성을 포위한지 수일만에 성을 함락시켰고, 송정제는 자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1636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로써 277년 간 사직을 유지해 왔던 명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아 있는 반란군은 이자성의 군대와 사천성으로 이동한 장헌충의 군대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작은 농민군들은 대부분 이자성의 군대에 합류했던 것입니다.

같은 해 1636년에 북경성을 수비하고 있던 오삼계는 성문을 활짝 열고 후금의 홍타이지를 받아 들였던 것입니다.

이제 천하에는 북경성의 새로운 주인인 청나라, 남경성에 주둔하고 있는 이자성, 그리고 사천성에 주둔하고 있는 장헌충등 이렇게 세 영웅의 대결만이 남았습니다.

역사서는 오삼계가 이자성의 군대와 합류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에, 자신의 애인인 진아무개가 이자성의 부하에게 능욕당했다는 정보를 듣고 화가 나서 말머리를 돌려 청나라 도르곤에게 투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소설치고도 삼류소설에서 나올만 한 이야기이다. 이것을 역사라고 기록한 사람도 참으로 딱하다 아니 할 수 없다.

그리고 오삼계가 청나라의 도르곤을 북경에 입성하도록 만든 후, 북경성에서 물러가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으나 청군이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역사기록도 넌센스입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입성시키고, 입맛에 맞지 않으니 나가라는 식의 요구는 마치 초등학생들이 소꿉놀이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깁니다.

수 백년간 지속된 사직이 역사에서 사라지느냐 하는 중대한 시기에 어린애들이 장난감총을 들고 싸움놀이에서 네가 졌으니 물러가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첨언할 것은 현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나 일부 한국인들이 작성한 중국의 역사서를 토대로 하여 중세 중국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성자 개인들의 상상력이나 판단력, 그리고 소설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문장의 구성력 등에 의하여 당시 현장의 역사적 사건들을 왜곡되게 기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의 중부와 북부, 동남부와 만주 지방, 그리고 한반도 전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고려의 역사를 수거하여 소각한 후, 청나라 건륭제 때 중국의 정사인 25史를 재판찬하는 과정에서 동이민족의 역사가 왜곡되었으며, 특히 서북지방과 신장, 그리고 서장에서 유목민족들이 펼쳤던 역사에 대한 사료(史料)들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사를 작성한다는 것은 수 많은 오류와 왜곡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처음부터 이들이 중국사를 편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창조된 역사는 하나의 소설이지 역사는 아닌 것이다. 허구의 역사를 만들려니 자연히 소설 형식을 빌리지 않을 수 없고, 이 소설을 구성하려면, 부득이 중국의 정사와 동이민족의 고대사와

중세사를 왜곡하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

이와 같은 사전 지식을 가지고 한반도와 대륙에서 펼쳐진 동이민족과 한민족(漢民族)의 투쟁사를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글의 후속편으로 "(七)-2"가 이어집니다.

● . 참 고

1) 동인도 회사(東印度會社)

영국, 네델란드, 프랑스 등이 동양무역을 하기 위해 17세기 초에 설립한 독점적 특허회사. 설립연도는 영국이 1600, 네델란드가 1602년, 프랑스가 1604년이다.

성립과정 : 15세기 말 이후 부터의 잇따른 대항해에 의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두 나라는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도는 항로로 동양무역에 진출했다. 이 동인도 산물 중에서도 특히 유럽시장에서 환영을 받은 것은 후추, 정향유(丁香油), 육두구(肉荳蔻)등의 향신료였다.

1595년 부터 1602년 까지의 기간 중에 동인도에 도향한 네델란드 선단(船團)은 14개, 선박은 65척이었다.

2) 동인도 제도(東印度諸島)

뉴기니아 섬 서반부를 제외한 현재의 인도네시아 제도의 호칭.

(이상은 한교 대백과사전에서 발췌한 것이다)

3) 중 세(中 世)유 럽

가) 해 외 팽 창(海 外 膨 脹)

유럽의 해외팽창에서는 세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첫번째는 지리학과 천문학이 발전하고, 이를 유럽인들이 실제항해에 응용하였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전이었다. 세번째는 화기(火器)의 발전, 특히 함포술의 발전이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15세기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평범한 지식이었다. 당시 아랍인들은 대서양을 "암흑의 푸른 바다"라고 생각하여 항해할

수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15세기의 항해가들은 해도 없이는 바다로 나가지 않았다. 중세 후기에 등장한 포르톨라노 해도가 처음 등장했다. 여기에는 지중해와 흑해가 망라 되어 있었으며, 북부유럽과 아프리카북부 까지 묘사되었다.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지리학자 메르카토르(Gerardus Mercator:1512~94)가 위도와 경도를 직선으로 나타냈다.

아랍의 뱃사람들은 별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항해하였다. 그들은 항로를 정했는데 이와같은 항법은 별의 방위각이 크게 변하지 않고 계절풍이 규칙적으로 부는 위도상에서는 믿을 만한 항해방식이었다. 오늘날에도 몇몇 아랍의 바글라스(Arab baghlas)선들은 이와같은 방식으로 인도양을 횡단하고 있다.

15세기 초의 항해자들은 육지를 시야에서 놓지게 되는 순간 자기위치를 알아 낼 다른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통상적으로 육지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의하였다.

15세기 초 유럽인들은 설계나 기술면에서 동양보다 훨씬 뒤떨어진 배로 해상무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말이 되면 유럽에서 제일 좋은 배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배가 되었다.

15세기 유럽인들은 회외무역의 상당부분을 갤리선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갤리선은 1570년대 까지도 이용되었고, 18세기가 되어서야 사라졌다.

이는 탐험이나 여타 종류의 대양 항해용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당했기 때문이었다.

나) 대 포(大 砲)

중세 후기 해상전투의 전형적인 방법은 주로 배를 맞댄 다음 다른 배로 난입하여 육박전을 치르는 것이었다. 갤리선은 때로는 뱃머리에 뾰족한 충돌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그것이 상대선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것 같지는 않다.

15.16세기에 대형군함에 세워진 갑루(甲樓:castle)와 포상(砲床: fighting top; 전함의 돛대위에 설치한 둥근 포대砲臺)에는 군인들이 배치되었다. 배에 장착한 대포를 언제, 누가 처음으로 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5세기 중엽까지 유럽 대부분의 대형전함에는 보통 쇠를 담금질해서 만든 소형대포가 선수미루의 갑루(甲樓)에 설치되었다. 대포는 원래 적함의 상갑판을 공격할 때 석궁과 화승총의 사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15세기 말엽에 이르러 포를 쉽게 발사하기 위해 뱃전에 총안(銃眼)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현축사격이 도입되자, 그것은 전 유럽의 대형범선으로 급속히 퍼져갔다. 16세기 초에 이르자 조선공들은 갑판 사이에 포를

설치하고 배의 현측에 포문(砲門)을 뚫는 가히 혁명적인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이 전투함은 19세기 까지 계속되었다.

15세기에 항해 문제에 관한 한 전 유럽을 선도했던 포르투갈인들은 해상전투에 이용할 무기로 보병이 아닌 포의 중요성을 인식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함포를 적을 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를 침몰시킬 목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사람들이기도 했다.

포화로 배를 침몰시키는 최초의 전투는 대서양이나 지중해에서가 아니라 인도양에서 치러졌다.

(이상은 J.H. 패리 지음, 김주석.임성준 옮김 "약탈의 역사"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七)-2

○.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 온 징기스칸의 후예

몽 고 맹 기 제 도 표

비 교 대 상	편 제	우 두 머 리
성(省)	맹(盟)	맹 장(盟 長) 또는(성 장)
현(縣)	기(旗)	찰살극 총관(현장) (札薩克 總管)

향(鄉)

참령(參領)

(향장)

촌(村)

좌령(佐領-150호)

(촌장)

가(街)

십장(什長-15호)

(가장)

주(註) : 1기 1좌령(150호)이 있고, 1기에 90여 좌령(1만3000호)
이 딸림. 몽고 맹기제도는 20세기 까지 보존되었고,
지금도 존재한다.

(이 대목은 백영 지음, 김영수 옮김 "맨 얼굴의 중국사" 중에서 발췌
한 것이다)

최초 흉노족은 유목하기 위하여 초원을 찾아 자주 이동을 해야 했고,
지역을 넓히면서 이동하다 보니까 유럽으로 말머리를 돌렸던 것이다. 그
들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과 풀을 찾아서 지상을 헤매고
다녔던 것이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동의 운명을 지녔고, 멈추면 자신의 생명이 끝

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달리고, 또 달리고 지구 끝까지 말을 몰았던 것이다.

기원 전 지상에 처음으로 흉노란 유목민족이 태어나서 18세기에 이르기 까지 흉노족의 후손인 몽고족의 황제들이 거대한 궁궐에서 금은보석으로 장식한 옥좌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했었다는 기록은 아직 까지 없었다. 대신 그들은 정복한 땅을 자손들에게 분배 해 주고, 스스로 그 땅을 다스리도록 권력분배를 했던 것이다.

이것은 봉건시대에 중국의 황제들이 자손들을 변경지역이나 먼 지방의 군주로 임명하여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가정책과 흡사한 것이다.

몽고인은 14세기 명 정부에게 장성 밖으로 쫓겨 난 뒤 줄곧 내전에 시달렸다. 달연한(達延汗)이 16세기에 한차례 통일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의 후손 때 다시 4개의 부(部)로 갈라졌다.

즉 찰합이(察哈爾), 악이다사(鄂爾多斯), 토묵특(土默特), 객이객(喀爾喀)의 넷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달연한의 피를 이은 후예들이었고, 이 밖에 큰 부락 2개가 공존하고 있었다.

찰합이의 임단한(林丹汗)이 1619년, 후금의 누르하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40만 몽고국을 통치하는 극한이 물가에서 3만명을 다스리는 대금국의 누르하지에게 문안을 드린다"는 말로 시작되 있었다.

그는 내부 통치에 고압적인 정책을 취해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1620년대 눈강유역의 과이심 부락이 먼저 임단한의 통치에서 벗어 났고, 이어 1624년에는 후금과 동맹을 맺었다.

이듬해인 1625년에 임단한이 과이심 부락을 공격하자, 누루하지가 직접 정예병을 이끌고 구원에 나섰다.

임단한은 선불리 공격하지 못하고 스스로 철수하고 말았다.

3년 뒤인 1628년, 서요하 유역의 객라심 부락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임단한에서 벗어나 후금에 투항했다. 다시 4년 뒤인 1632년, 후금의 2대 극한 황태극이 투항해 온 몽고 부락과 함께 서방원정군을 조직하여 찰합이 부락을 총공격했다. 임단한은 대패하여 서쪽으로 도망쳤다.

토목특 부락과 악이다사 부락도 차례로 후금에 투항했다.

임단한은 청해호(靑海湖)에서 열흘거리 정도 떨어진 대초원으로 도망쳤다가 병으로 죽고, 남은 부락은 청해일대에서 3년을 더 버티다가 1635년에 마침내 후금에 굴복했다.

만주인은 위에서 말한 정복한 몽고 부락과 토지(새북塞北의 전체영역)을 내몽고라고 불렀다. 그리고 막북(漠北)에 아직 합병되지 않은 객이객 부락을 외몽고라고 불렀다.

몽고에 대한 청 정부의 대우는 한족에 대한 것과는 달랐다.

첫째 몽고인에게는 우민정책(愚民政策)을 실시하여 그들이 한족의 문화를 받아 들이지 못하게 차단했다.

청 정부가 몽고를 통치하는데는 두 가지 비밀무기가 있었다.

하나는 라마교를 이용하여 몽고인을 종교 속으로 젖어 들게 만듦으로써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전투력과 전투정신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방면에서의 효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또하나는 공주들을 여러 몽고 추장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었다. 몽고추장들은 원래 극한이라 불렀으나, 만주족에 투항한 뒤로는 번왕 또는 공작, 합쳐서 왕공(王公)이라 바꿔 부르게 했다. 만주족 황제의 여자 인척들(여동생, 딸, 고모, 이모)중 많은 수가 몽고의 왕공에게 시집갔다. 하지만 한족에게 시집가지는 않았다.

청 정부의 정책기조는 과거시험으로 한족을 통제하고, 혼인으로 몽고족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공주의 자식들이 어려서 부터 어머니를 따라 외할아버지 또는 외삼촌이 사는 황궁에 와서 놀다 보니 커서도 어릴 때 놀던 곳을 그리워하게 되는 소위 향심력(向心力)이 생겨날 수 밖에 없었다.

1690년대 현업대제는 다룬낙이(多倫諾爾-내몽고 다룬)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몽고 고위층을 초청했는데, 많은 몽고 왕공들이 북경황궁에서 자란 자신의 외손자 또는 조카임을 발견하고는 아주 의기양양했다.

그러나 청 정부는 이들 왕공에게 부와 명예를 주어 그들 인민을 통치하

는데 따른 존엄성은 확보 해 주었지만 늘 그들을 감시했다.

한족과의 왕래를 막고, 한문공부를 허락하지 않았다. 한인연극을 보지 못하게 했고, 한족선생을 모시지 못하게 했으며, 자식들이 한인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 목적은 말 할 것도 없이 몽고인을 영원히 무지몽매한 상태로 묶어 두겠다는 것이었다.

(이상은 백영 지음, 김영수 옮김 "맨 얼굴의 중국사"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누루하지를 생포하다.

조선과 명의 후광을 등에 업고 1606년. 애신각라(愛新覺羅)를 건국한 누루하지는 1625년에 찰합이 부락과의 전투 중 생포되었다.

그는 세계를 제패한 징기스칸의 후예들을 너무 얹잡아 보고 덤비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制霸)할 때에는 그들에게 타 민족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들만의 독특(獨特)한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별한 전술(戰術)과 지혜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세계제패는 불가능한 것이다. 누루하지는 이점을 간과하고 적을 우습게 여기고 덤벼들다가 생포된 것이다.

몽고족의 누루하지생포는 명나라와 조선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후금으로 부터 소식을 접한 조선의 광해군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들과 비밀회의를 소집했고, 누루하지 석방교섭을 위해 고려출신 대신들을 급히 선발하고 몽고어를 할 줄 아는 역관(譯官)을 뽑아서, 정보를 가지고 온 사신과 함께 황급히 후금으로 출발시켰다.

후금에서도 중신회의를 열어 누루하지의 16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총명한 여덟째 아들(추후에 2대 황태극)을 석방교섭단장으로 삼아 상기 조선대신들과 역관을 대동하고 찰합이로 떠났다.

석방교섭단장인 누루하지의 여덟째 아들은 조선대신이 일러 준대로 다시는 내몽고 지역을 침범하지 않고, 후금의 공주들을 찰합이 왕공들에게 시집보낼 것과 두 민족의 영구평화와 화합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흥타이지로 개명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누루하지의 석방을 성사시켰던 것이다.

사실 이때가 명나라, 조선, 그리고 후금의 최대의 위기였고, 조선의 광해군과 비밀회의에 참석한 조선대신들이 다 꺼졌던 촛불을 다시 살렸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여진족의 이름 가운데 흥타이지란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흥타이지란 이름은 몽고족의 칸의 이름이다.

당시 누루하지의 나이는 68세였다. 내몽고를 달래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중국천하를 잠재우기에는 그는 너무나 늙었고, 쇠약하

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여덟째 아들에게 물려 주기로 하고 정치에서 물러났다. 누루하지의 첫째 아들을 비롯한 나머지 자손들은 여덟째의 공로를 높이 사서 아버지의 결정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덟째 아들은 이름을 홍타이지로 바꾼 후, 1626년에 칸에 자리에 오른 것이다.

칸에 등극한 홍타이지는 몽고족에게 상술한 바와 같은 유화정책(柔和政策)을 펴서, 내몽고와 막북의 문제를 해결했다.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누루하지를 석방하고 홍타이지의 교섭조건에 순순히 응한 것은 이미 자신들의 시대가 지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홍타이지의 큰 뜻을 펼 수 있는 제반조건들이 만들어 졌다.

1633년 명장(明將) 모문룡의 부장인 공유덕(孔有德)과 경중명(耿仲明)이 홍이포 30여문을 가지고 투항했다.

홍타이지는 공유덕을 도원수(都元帥)로, 경중명을 총병관(總兵官)으로 각각 임명했다. 뒤이어 1634년에는 명장(明將) 상가희(尚可喜)가 2천명의 병사와 함께 투항하여 총병관(總兵官)에 임명되었다.

후금의 홍타이지가 몽고족에게 베푼 우대정책(優待政策)은 원나라 공주가 고려로 시집오는 풍습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1636년5월15일. 오삼계의 안내로 북경성에 입성한 홍타이지는 국호를 후금에서 대청으로 바꾼 후, 자신이 중국의 황제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다. 그의 황제선포는 명나라 조정의 신료들과 백성들의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조선왕조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자신이 황제를 선포한다고 해서 이루어 지는 문제가 아니다. 주변국들이 그의 황제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에게 덕행을 쌓고 인심을 베풀어서, 자신이 황제의 그릇임을 보여 주어야 되는 일이지, 일방적으로 내 앞에 와서 꿇어라는 식으로는 절대 성사 될 수 없는 문제다.

황제 즉위식을 마친 청의 홍타이지는 같은 달(5월)에 공유덕을 공순왕(恭順王), 경중명을 회순왕(懷順王), 상가희를 지순왕(智順王)에 각각 봉했다.

그리고 1636년 12월. 청의 홍타이지는 파국으로 치닫는 조선정부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민을 총사령관으로 삼고, 공유덕, 경중명, 상가희 등 한인 장수들을 거느리고 친히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침략에 나섰다.

파죽지세로 치달은 청군은 일주일만에 평양을 점령하고 보름만에 남한산성을 포위하여 압박을 가한 끝에, 마침내 조선왕의 항복을 받아 내었다. 그리고 조선왕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의 홍타이지에게 굴욕의 삼배구고두를 올리고 종묘사직을 보존 받았다.

청군은 전국에 산재 해 있는 반정부세력(한반도 생묘)을 일망타진한 후, 생묘들의 가족을 비롯하여 60여만명의 양민들을 포박하여 북경으로

끌고 갔다. 60여만명의 양민들 가운데 20여만명이 젊은 여성들이었다.

홍타이지는 북경시내에 노예매매 시장을 개설하여, 조선인 포로 60여만명을 그들의 부모들에게 되팔아 자금성 건축과 반란군 진압을 위한 청군의 병참비로 충당했던 것이다.

이것이 1636년 인조14년에 발생한 병자호란(丙子胡亂)이다.

동이민족은 조선정부의 교활하고 기만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짐승처럼 사고 팔렸고, 돼지처럼 끌려 가서 오랑캐의 먹이감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역사는 그후 350년이 지난 1910년.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현되었고, 현재 동이민족을 노예화하기 위한 제3차 Program이 진행 중이다.

마침내 40여년 간 지속되었던 한반도의 내란은 종지부를 찍었고, 꺼져 가던 생명의 촛불을 다시 밝힌 조선 왕조는 대내외로 부터 어떤 도발도 받지 않고 300년 역사를 재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 망명정권(亡命政權)을 토벌하다.

삼 번 왕(三 藩 王)

이름	작위	도성	관할구
오삼계	평서왕	곤명	운남성, 귀주성
상가희	평남왕	광주	광동성, 광서성
경중명	정남왕	복주	복건성

오삼계가 북경성문을 열고 후금의 흥타이지에 투항하였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전 중국으로 퍼져 나갔다.

하남의 이자성과 사천성의 장헌충들도 이 소식을 접한 후, 미래의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참모회의를 각각 소집했다.

이자성과 장헌충이 거느린 부하들은 대부분 농민들로 구성되었고, 또한 전투경험이 별로 없는 오합지졸들이다. 이들을 계속 반란군에 묶어 두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동요하는 농민군들의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자성은 장시간 토의 끝에 1638년. 복건성 응천(추후 남경으로 개칭)에서 대순국(大順國)을 세우고, 이를 천하에 선포했다. 그리고 군조직을 재편하고, 추가로 병졸을 모집하여 그 동안의 손실된 병력을 보충했다.

한편 사천성의 장헌충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자신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 왔음을 직감했다. 비로서 지나 온 30여년 간의 발자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최초 반란군을 이끌었던 왕가윤의 죽음, 형양회의(衡楊會議)에서 연합작전을 펴자고 주장하던 이자성의 모습, 그리고 고영상의 죽음등이 꼬리를 물고 지나갔다.

그렇게 용솨음을 쳤던 소용돌이는 모-두 가라 앉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삼인 뿐이다. 청, 이자성, 그리고 자신이다.

누가 승리할 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그는 오삼계가 반역을 꾀할지는 상상도 못했고, 더욱이 후금의 흥타이지가 북경성을 차지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 설 수도 없다.

30여년 동안 수 많은 전쟁 속에서 많은 동료들이 죽었고, 부하들이 희생당했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을 믿고 따른 참모들과 농민들을 버리고 나만 사라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패륜행위다. 어차피 시위를 떠난 화살인데, 과녁에 꽂히든 말든, 지금에 와서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그는 이자성이 왜 연합전선을 펴자고 했는지를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적은 명나라의 현대식 대포와 소총으로 무장한 군사가 수만에 달한다. 처음 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다. 혹시 이자성과 연합을 한다면, 한번 해

불만한 상대이지만, 그는 이자성이 누구라는 것을 지난번 전투에서 경험했다.

조선 침략을 승리로 장식한 청의 홍타이지는 1638년 부터 군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귀순한 한인 장수 공유덕, 경중명, 상가희등을 팔기군 창설의 핵심멤버로 삼은 후, 만주군을 대폭 물갈이 했다.

그리고 대만에서 들여 오던 네델란드 대포의 수송이 이자성군대의 의해서 막히게 되자, 대신 가도에서 발해만을 통해 산둥반도에 있는 항구에 하적한 후, 마차를 이용해 산해관을 통과하여 전국 각지로 배송되었다.

청은 이자성군대를 공격하기 위하여 1644년(順治 원년)11월 말 섭접왕 도르곤의 형제들 가운데 아지거(阿濟格)를 정원 대장군(靖遠大將軍)에, 도도(多擇)를 정국 대장군(定國大將軍)에 임명하여 출정시켰다.

아지거와 도도는 각각 한인 장군인 오삼계와 공유덕의 인솔을 받으며 두 방향으로 이자성을 추격하였다. 이자성은 남경을 탈출하여 호북으로 쫓겨 갔다가 호북과 강서의 경계인 통산현 구궁산(通山縣 九宮山) 부근에서 촌민들에게 피살되었다. 그리고 그의 잔여부대는 호북과 호남지방에서 계속하여 활동하다가 이후 남명정권과 연합하였다. (청사 임계순)

그 이듬해인 1645년6월 청 정부는 홍타이지의 맏아들인 숙친왕

(肅親王) 하오거(豪格)에게 명하여 사천에서 대서국(大西國)을 건국하고 있던 장헌충의 농민군을 공격하도록 했다. 큰 타격을 입은 장헌충은 사천지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1646년12월 서북의 봉황산(鳳凰山)에서 전사했다. 한편 지도자를 잃은 잔여부대는 손가망(孫可望)과 이정국(李定國)의 인솔하에 운남과 귀주로 이동했다가 역시 남명정권과 연합하여 청군에 대항하였다.(청사 임계순)

이로써 40여년의 걸쳐서 전 중국을 휩쓸었던 반란은 종지부를 찍었고, 1646년에 청 정부는 반청세력이 강한 지역인 직예성의 순덕(順德), 강소성의 소주(蘇州).남경(南京), 섬서성의 서안(西安), 산서성의 로안(潞安).포주(蒲州), 절강성의 평양(平陽)등에 만주팔기군을 주둔시켜 치안을 확보했다. (청사 임계순)

이제 가장 힘들었던 내몽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조선의 민란도 진압하여 조선을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로 만들었으며, 또한 국내 반란군도 모두 진압하고 두 사람만이 남았다. 이자성과 장헌충 둘 뿐이다. 망명왕조는 내년이면 귀주성과 운남성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일이 각본대로 진행이 되었다.

청나라가 진정한 중국의 주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민심을 얻어야 하고, 따라서 명나라 신료들의 인심도 사서 그들의 신뢰를 우선 받아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조선의 반정부세력을 달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신회의에서 이러한 결론을 얻어 낸 홍타이지는 자신의 아홉째인 6살 백이 아들 복임(福臨)에게 보위를 물려 주기로 하고 1643년 정치에서 물러났다. 역사는 그가 급서했다고 기록했다.

1949년 청은 남명정권을 토벌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폈다. 청군을 선두로 오삼계, 공유덕, 상가희, 그리고 홍승주등이 각각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동서남북에서 귀주성과 운남성을 향하여 진격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1659년1월 마침내 운남성에 있던 남명의 수도 곤명(昆明)을 점령하였다. 이로써 남명정권은 완전히 토벌되었다.

전장(前章)에서 보시다시피,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의 후손들은 한결같이 귀주성과 운남성에 망명정권을 세워 청나라에 대항했다. 귀주성과 운남성은 생묘의 터전이고 반명세력이 강한 지역으로 내란의 주요 진원지이기도 하다.

그들은 생묘가 망명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므로 이곳에 망명정부를 세워 적의 목표물을 만들어서 청군이 토벌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환경에서 생묘는 청을 지지할 수 도 없고, 그렇다고 더더욱 명나라측에 설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생묘들도 오삼계가 청군을 북경성내로 끌여 들였을 때, 이미 사태파악을 했고, 또 1636년에 홍타이지가 조선을 재침하여 반정부세력을 진압하고 포로 60여만 명을 끌고 북경으로 되돌아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비로서 명나라 후손들이 왜 생묘의 터전인 귀주성과 운남성에 집중적으로 망명왕조를 세웠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생묘들 사이에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청군의 만행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이다.

청나라 옹정(雍正)연간 까지 귀주성과 운남성은 중국 땅이 아니었으며, 고구려 유민으로 형성된 먀오족은 중국사람이 아니었다.

이후 부터 청나라는 둔전(屯田)을 설치해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으며, 이에 반대하는 먀오족을 학살했는데, 5살 이상의 모-든 남자를 죽였다. 이 때 먀오족의 2/3가 죽임을 당했으며, 나머지는 베트남, 동남아로 피난했다.

이후 청나라 옹건(雍乾)에서 함동(咸同)사이 100여년간 먀오족의 3대 투쟁인 옹건기의, 건가기의, 함동기의를 조직하여 청나라에 대항했던 것이다. 이들 기의는 자신들의 생존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먀오족의 투쟁이면서 고구려 유민의 마지막 투쟁이기도 했다.

끝으로 토목의 변과 경술의 변은 과연 발생했었는가?.

명나라 초기에 북쪽에는 동쪽으로 달단이, 서쪽으로 오이라트가 명나라의 국경을 자주 침범한 것은 사실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 가 보면, 동쪽에 동돌골이, 서쪽에 서돌골이 당나라의 변경을 자주 침범했었다. 동돌골의 후손이 달단이고, 서돌골의 후손이 오이라트이다. 동쪽의 달단이 거주하는 지역이 지금의 내몽고이고, 서쪽의 오이라트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의 신장이다.

정통14년(1449)에 황제가 오이라트를 토벌하기 위해 왕진이란 환관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후, 50만 대군을 친히 이끌고 전투를 벌이다가 적에게 생포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이 수십만 대군이 토목에 도착하여 하북성 회례현에 있는 회래성에 주둔한 다음, 전쟁 중 오이라트의 작전에 말려 들어 수십만의 사상자를 내고 황제는 생포되었다.

전투경험이 전혀 없는, 다시 말해 칼을 잡아 본 적이 없었던 환관을 대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바보짓이다.

아무리 황제가 멍청하고 그를 신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회의석상에서 달변으로 주위를 압도하는 일과 목숨이 오고 가는 전쟁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이 정도 상식은 고등학교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이와같은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성이 크다해도 수십만 대군을 수용할 수 있는 성을 축조할 수 없다. 축조한다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성을 축조할 때는 적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산기슭이나, 아니면 산을 배경으로 하여 성을 쌓는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리고 포로가 되는 장면도 참으로 허술하기 이룰데 없다. 황제를 지키는 고수가 반드시 두 세명이 있다는 것도 상식이다. 이 고수들은 수천명의 고수들 가운데서 선발한 인원이다. 우선 황제를 생포하려면 이자들 부터 제거한 후에 가능한 것이다. 풀밭에 앉아 있다가 생포되었다는 이야기는 만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황제가 회래성 안에서 생포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무엇때문에 성밖으로 나와서 풀밭에서 생포되었는가?.

동쪽의 달단의 공격으로 황제가 생포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오이라트는 하북성에서 수만리 떨어진 신장에 거주하는 종족이다.

그리고 또하나는 경술의 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가정29년(1550) 대동(大同)에 침입하여 총병 장달을 죽이고, 고북구를 거쳐 통주, 백하를 유린한 다음, 마침내 북경성을 포위했다. 그런데 다행히 각

지로 부터 원군이 달려 와서 포위당한지 3일만에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인 것 같다. 그러나 발생한 장소는 대동이 아니다.

대동은 산서성에 있으며, 산서성은 하북성과 이웃하고 있다. 북경성 주위에 북노들이 자주 출몰하여 소란을 일으킬 정도면, 수도의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번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이런 일이 두번 발생할 때는 적도 대책을 강구하고 북경성을 포위한다.

더군다나 북경성은 황제가 거주하는 곳이며, 명나라의 핵심 기관이 다 모여있는 그나라의 심장부다. 그런데 적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수도를 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되는 이야기다. 토목. 대동, 태원, 영하등은 전부 산서성과 하북성 부근의 도시이고, 북경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적이 명나라의 황제가 살고 있는 심장부인 북경성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통과해야 할 성(城)이 십여개는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그 만큼 한 나라의 심장부를 공격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적이 10개의 성들을 공격하는 동안에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것은 봉건시대에 국가의 수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도 적이 북경성을 포위할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수도를 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게 어려운 설명이다. 그럼 왜 이런 역사를 만들어 북경성을 부각시켰는가?.

북경성은 고려의 수도이다. 이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역사다. 앞장에서도 언급했었지만, 고려의 영역은 하북성, 산서성, 섬서성, 강소성 등 주변일대이며, 내몽고의 중부와 북부를 포함한다. 이 영토를 축소하여 역사를 만들려니까 자연 내용이 소설처럼 창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위와같은 황당한 이야기들이 역사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선조대에 조작된 동이민족의 역사에 맞춰서 청나라 건륭제때, 중국의 정사인 25史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동이민족의 역사를 재창조했던 것이다. 이 당시 역사조작에 참여한 사람은 바로 명나라 관리들이다. 청은 그 당시 중국어 실력이 없어서 중국역사서를 읽을 수준도 안된다. 이 작업은 몇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특별 부서를 만들어서 수 십명이 몇달 걸려서 만들었음이 틀림없다고 본다.

중국의 역사서는 전부 한결같이 북경성을 점령해야만 중국의 주인이 되고 황제가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자성은 1644년에 섬서성 서안에서 대순국을 세운 후, 그 여세를 몰아 3월말 경에 북경성을 함락하여, 그곳에서 다시 황제 즉위식을 치른 후, 곧바로 오삼계와 청군이 이끄는 연합군을 상대로 전투 중 패하여 6월 초에 북경성을 버리고 하남지방으로 도피하였다가 그곳에서 촌민들에게 피살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오삼계도 원래는 산해관을 수비하는 총사령관이었는데, 이자성군대와 합류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이자성의 부하가 오삼계의 애인인 진아무개를 능욕했다는 정보를 부하로 부터 듣고 화가 나서 말머리 돌려 청나라의 도르곤에게 투항한 후, 명나라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을 내 걸고 청나라와 합세하여 이자성을 북경성에서 몰아 내고, 청군을 이끌고 북경성에 입성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역사서는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가 청에 불모로 끌려 가 있다가 청나라의 도르곤의 초대를 받고 청군이 북경성에 입성할 때, 함께 영광을 누렸었다고 되어 있다.

이자성이든 누구든지 간에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구태여 북경에 들어 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자신이 야망을 가진 영웅이라면, 우선 자신이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닦은 후 천하로 부터 오는 장수와 인재들을 모아서 주변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북경성으로 진격한다면, 북경성은 자연히 함락되는 것이다. 무조건 북경성에 입성해야만 천하의 황제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생명이 다한 왕조에게 무얼 기대하겠다고 북경성에 들어 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중국의 고대사와 한국의 고대사를 살펴 보아도, 일단 전 왕조를 엮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때는 전 왕조가 살던 궁궐에 들어가서 즉위식을 선포하지 않는다. 북경시에 다른 지역을 선택하여 궁궐을 새로 지은

후, 신천지가 도래하였으니 만백성들은 다 나와서

함께 축복하자고 성문에 대자보로 써 붙이는 것이 통례다.

이씨조선도 개성을 버리고 바로 옆에다 한양이란 새로운 수도를 만들지 않았는가?. 만약 당신이 사업을 해서든 월급쟁이를 해서든 일단 돈을 모은 후 집을 산다면, 현 집을 사서 헐고 그자리에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넓고 새로운 부지에 새 집을 건축하여 살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전 왕조는 자신에게 멸망당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영웅이 자신의 뜻대로, 설계대로 지은 궁궐에서 살려고 하지, 멍청한 전 왕조의 모습을 닮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심정이다. 승리를 쟁취한 영웅이 보기에겐 전 왕조의 모든 것이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살던 궁궐에 들어 가서 황제 즉위식을 하겠는가? 이와 같은 중국의 역사서는 고려의 수도가 북경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서술하다 보니까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 동이민족과 한족(漢族)이 대륙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다.

현 한국의 역사서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40년 후인 1636년에 병자호란이 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 국가가 반세기도 되지 않아서 전란을 두번씩이 치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세계사 어디에도 이와같은 사례는 없다.

그러므로 임진왜란은 발생하지 않았었고, 사실은 약 반세기에 걸쳐서 동이민족과 한족(漢族)이 대륙의 주도권을 놓고 투쟁한 역사다. 그러니까 명나라와 조선의 집권층이 한반도와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민란을 진압하는데 약 50년의 세월을 소비한 역사이다.

명과 조선에서 발생했던 약 50여년 간의 내란은 동이민족과 중화인의 역사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중국대륙의 1/3을 차지하고 있던 고려와 한족(漢族)이 대륙의 강역을 놓고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를 결정짓는 전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당과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륙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을 당시, 당의 강역은 단지 사천성과 그 주변이고, 서장과 신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삼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내가 동이민족이라고 해서 과장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양국의 민란은 동이민족과 한족(漢族)이 자신들의 강역을 확정짓는 역사전쟁이었던 것이다. 보시다시피 내부의 간세의 농간에 의해서 이 내란에서 패한 동이민족의 광활한 영토와 역사는 차츰 줄어 들어 오늘날의 한반도 역사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이민족 역사조작에 큰 공을 세운 세력이 바로 일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다름아닌 한국인이다. 이들의 한국인 가면을 양파까듯 하나씩 벗겨낸다면, 아마 중국인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도 이와같은 역사조작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자신의 범행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 경우라면, 어떤 처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완벽한 증거조작(證據操作)

그럼 청나라는 왜 고려의 수도인 북경성에 들어 가서 구궁궐을 모-두
헐고 새궁궐을 지었는가?.

이 때 신축한 건물이 바로 유명한 자금성(紫禁城)이다.

북경성이 고려의 수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자리에 다른 건
축물을 세워서 흔적(痕迹)을 말끔히 지워야 한다.

구가옥을 헐고 그자리에 더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세워 놓아야 후대의
사가(史家)들이 북경성에서 고려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건물들을 전부 다 헐어 버리고 땅 속을 파
서 고려의 유물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미 신축을 할 때, 지상과 지하의 흔적도 말끔히 청소를 했던 것이다.
구건물을 헐고 그자리에 신축을 설계했을 정도면, 후대에 지하의 유물의
존재가 발견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두고 신축을
추진했던 것이다.

고대의 모-든 왕조들은 새 터전에 새로운 궁궐을 지어서 황제즉위식을 올렸는데 반하여, 왜 유독 청나라 만이 전 왕조의 북경성위에다 자신의 궁궐을 짓고 황제즉위식을 거행했는가?.

본인이 늘 이야기 하지만, 증거조작은 살인범이 한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제삼자는 증거에 관해서 일말의 관심도 없다. 증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증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경성에서 고려의 흔적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경시내에서 고구려나 고려의 유적(遺跡)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현재 북경시내에 살고 있는 토박이들이 고려태조 왕건에 관한 전설을 이야기 한다든가, 또는 시내에서 고구려의 유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왜 이런 유물들과 전설이 북경시내에서 발견되고, 전해지는가?. 다 그렇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북경시내에서 대대로 살아 온 사람들의 전설과 고구려 유물들이 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책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그들의 이야기들을 전부 부정하는 것은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귀중한 사료(史料)라고 생각했던 책이 조작된 것이면 어떻게 하겠는가?.

단지 자신의 잘못된 지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역

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납득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독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학문은 독단적 지식이 아니고, 만인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다.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삼자를 오도(誤導)하여 사욕을 채우는 일은 학자로서의 길이 아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후손들의 존경의 대상에서 멀어지게 됨은 물론, 한 사람의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만다.

ㄱ) 악마의 유혹

고대 중국 황제들의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은 권위와 힘의 상징이었다.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기업, 또는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수도 한복판에 가장 높은 현대식 빌딩을 건축하여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한다.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사고방식은 동일하다. 다만 둘 사이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미개발 상태인 자연시대에서 살았고, 다른 하나는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여진족은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무시하고 도덕군자인양 타인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에다 대궐을 지었는가?

바로 여기에 모든 음모가 내포되어 있다.

여진족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신라후손과 조선 왕조의 동이민족역사 조작에 관한 음모가 큰 몫을 차지했다.

수 천년동안 대륙에서 펼쳤던 동이민족의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좁은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해 놓은 선조와 그의 후손인 인조는 청나라 도르곤에게 이 조작된 역사를 참역사로 둔갑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대륙에 있는 고려의 수도인 북경성의 흔적을 말끔이 없애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설파했던 것이다.

당시 선조는 지명(地名)을 제외한 대략적인 삼국의 강역을 한반도에 비정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당시 대륙에서 고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강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명나라의 영토였기 때문에 고려의 대륙지명(地名)을 한반도에 비정(比定)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마 당시의 고려지명은 고구려지명이 아니면 몽고족의 지명이였음이 틀림없다.

이는 이씨조선이 건국하자마자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손질한 것이 동이민족의 고대사 수거와 소각이고, 두번째가 세종대에 창제된 한글에서 감지할 수 있다.

여진족이 한반도의 동이민족을 통치하려면 의사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창안해 낸 것이 한글창제다.

한족(漢族)과 신라후손은 200여년 전 몽고족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얻은 뜻밖의 경험과 의사불통으로 인하여 간첩망의 형성이 가능했었던 과거경험을 통하여 통치철학을 터득했던 것이다.

원나라 말기에 각지의 반란군들이 원나라와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주원장은 남방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반란군들의 상대는 원나라였으나 주원장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같은 입장의 반란군들이 토벌의 대상이었다.

그는 남방의 집경(集慶)을 함락한 다음 이곳을 응천(應天)으로 이름을 바꾼 후 자신의 근거지로 삼았다. 명나라를 건국한 후, 그는 응천을 남경(南京)으로 이름을 바꾼 후 수도로 삼았다. 그러기 때문에 대륙의 동남부 지방만이 당시 중국어 지명을 가지게 되었고, 이 지명들은 송나라와 명나라 때 만들어 진 것이다.

현재의 성(省)들의 이름은 청나라가 서장과 신장을 평정한 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대륙 동쪽지방의 지명들도 이때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청나라 건륭제 때 중국의 정사인 25史를 손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고려의 대륙지명들을 한반도로 비정하려면 부득불 25史를 수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조상의 역사도 아닌데, 여진족이 중국의 정사인 25史를 재편찬 했고, 이때에 동이민족의 역사가 수난을 겪었던 것이다.

현재 중국사는 남경을 강소성 남경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은 복건성 응천(푸첸성 응천)이 남경이고, 명나라의 수도인 것이다. 이 사실은 일본인 역사가에 의해서 밝혀진 역사이다.

아마 강소성 남경이란 지명은 청나라가 중국 천하를 완전히 평정한 후, 건륭제 때 25史를 재편찬하는 과정에서 창조된 것 같고, 그 동안 수정된 25史의 내용을 숨겨 오다가 일제 식민지시절에 총독부 산하 반민족매국노인 친일사학자들과 일본인들이 동이민족의 역사를 조작할 때, 25史에 새로이 기록된 지명(地名)들을 한반도에 비정(比定)했던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조 말기에 나라를 일본에 바치기 위하여 조선 왕조가 꾸민 마지막 드라마에서 기술하겠습니다.

"가쓰라.테프트 밀약은 무엇을 뜻하나?" 란 게시글의 하단에 있는 ○. 조선 왕조는 왜 위와 같은 드라마를 연출했을까? 란 대목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참 고

1) 운귀 고원

운남.귀주 두 성을 포함한다. 무수히 많은 큰 산과 세차게 흐르는 하천

그리고 험준하기 이를 데 없는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고원이
다. 운남 지구의 산맥은 대부분 북에서 남으로 뻗뻗하게 배열되어 있어
마치 거대한 담장이 늘어선 것 같다. 그 사이사이를 하천이 으르렁대며
물방울을 사납게 토해내며 흘러내리고 있다.

귀주 지구는 수 많은 산이 교차하기 때문에 널찍한 평지를 만나기가 어
렵다. 다음 세 마디 속담이 가련하기 짝이 없는 옛 귀주의 처지를 잘 설
명 해 준다. "사흘 이상 갠 날 없고, 3리 이상 평탄한 땅 없고, 두세 푼 은
자를 가진 사람 없다."

운남의 기후는 비교적 적당하지만 교통은 3리 이상 평평한 땅이 없어
귀주보다 더 불편하여, 직선 거리로 하루 일정이 산과 계곡을 거쳐야 하
기 때문에 통상 3.4일이 걸린다. 곤명(昆明)에서 대리(大理)까지는 250km
로, 걸어서 14일이 걸린다. 그러나 190km인 대리에서 등충(騰沖)까지는
걸어서 15일이 걸린다. 이처럼 곤라하기 짝이 없는 교통 상황과 장애물
로 막힌 지세가 운귀 고원의 특징이다.

이 고원의 또 다른 특징은 인종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귀주의 총산(叢
山) 묘족(苗族)의 근거지이며, 기타 다른 지역에 태인(태인). 수인(水人). 동
인(동인). 포의인(布依人). 토가인(土家人). 흘료인(흘료인) 등이 찬란한 빛
을 내며 흩어져 있다.

중국인들은 이들 소수 민족을 매우 낮 설어 했고, 장기(장氣)라 불리는

공기 오염과 각종 전염병을 매우 두려워했다. 그래서 19세기 전 까지만 해도 이 지구를 독충이 우글거리는 소굴이라 생각했으며, 아름다운 묘족 처녀들은 누구나 신비한 하충(下蟲)이라는 사슬("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음식을 통해 뱃속으로 침투하여 때가 되면 발작을 일으킨다고 한다)을 부려 그녀를 사랑하는 박복한 중국 청년에게 치료가 불가능한 독을 쓴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온 사람들 중 열에 아홉은 불행하게 죽는다고 여겼다.

이곳에 파견된 중국 관리들은 마치 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부임했다고 한다. 20세기 이후 철도와 중공업이 엄청난 위력으로 이 지구에 밀려 들었고, 모든 것이 신기할 정도로 변하여 현대화된 새로운 세계가 되었다.

2) 막 북(漠北)

한해 사막군의 북부를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 새북의 북쪽으로 외몽고와 바이칼 호수를 포함하는 곳이다. 북방 유목 민족이 중국침략을 도발하는 근거지이기도 했다. 합이화림(哈爾和林)은 한국의 왕궁이 있었던 곳이며, 회흘 한국은 일찍이 이곳에다 성을 쌓았다. 그 뒤에는 몽고 제국 초기의 수도 구실을 하기도 했다.

중국이 침략자에 맞서 반격을 가하려 할 때, 원정군은 한해 사막군을

힘겹게 깊숙이 뚫고 지나가야만 침략자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었다. 새북 지구에서만 승리를 거두는 것은 그저 가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원정군이 철수 하고 나면 유목 민족을 즉각 다시 역량을 결집했다.

중국이 감수해야 할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이것이었다. 막북이 중국에 합쳐질 때 중국인은 비로서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막북이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면 중국인은 안심하고 잠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은 백양(柏楊)지음.김영수 옮김 "맨 얼굴의 중국사"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여러분은 북경이 왜 한반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 게시글의 후속편으로 "현대전에 몽골의 군사전술이 이용되다(七)-3"가 이어집니다.

(七)-3

○. 서방 강대국들이 몽골의 군사전술을 배우다.

제 2차 대전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칭기스 칸이 새삼스럽게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묘한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선전과 이데올로기에만 이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군사작전에도 응용되었다.

소련, 일본, 독일은 모두 새로 발굴된 "몽골 비사"를 판독하고, 번역하고, 해석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그 책에 중국과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던 몽골 군사전술의 비법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20세기에 탱크가 개발되면서 기병과 포병은 다시 하나의 부대로 통합 될 수 있었다. 몽골의 말을 탄 궁수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각 국의 군사전략가들은 현대의 탱크전을 운용할 묘책을 찾기 위해 옛날의 몽골 모델로 눈을 돌렸다.

독일은 가장 효과적으로 이 모델을 응용하여 전격전을 개발했다. 이것은 기동성이 뛰어난 군대가 빠른 속도를 이용해 적을 기습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몽골의 작전을 따른 것이었다. 독일은 몽골의 전술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몽골 비사"를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베를린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학의 사회학 교수 에리히 해니쉬가 독일어 번역 작업을 맡았다. 해니쉬는 한자 음가를 빌려 몽골어를 표기한 텍스트로 부터 번역을 하고 사전을 만들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으로 1941년에야 작은 판본으로 출간이 되었다. 그마저 운송의 어려움 때문에 배포가 지연되었다. 책이 담긴 상자들은 1943년 까지 라이프치히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연합군의 폭격으로 불에 타버렸다. 결국 역사의 비밀은 나치에게는 그대로 비밀로 남고 말았다.

독일 군부가 몽골 연구를 하는 동안 소련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아시아의 두 정복자 칭기스 칸과 티무르를 이해하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티무르의 시신을 발굴하기도 하고, 헛수고이긴 했지만 칭기스 칸의 시신을 찾는다고 부르칸 칼둔 지역으로 군사원정대를 몇 번이나 보

내기도 했다.

일부 학자들은 몽골 역사를 번역하기도 하고, 아주 기묘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예를 들어 몽골 땅을 비추는 해의 각도와 힘은 세계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식이었다. 이렇게 엉뚱함과 진지함이 뒤섞인 태도로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몽골 전략을 그들 나름으로 해석하여 따라가기 시작했다.

소련은 1223년 수베데이가 칼카 강에서 러시아를 물리칠 때 사용한 전술을 대규모로 적용하여 독일군을 러시아로 깊이 끌어들였다. 결국 독일군은 러시아의 넓은 지역으로 대책 없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소련군은 몽골군처럼 반격을 하여 독일군을 각개격파해 나갔다.

[이상은 잭 웨더포드(Jack Weatherford) 지음, 정영복 옮김 "칭기스 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이 게시글의 후속편으로 "골육상쟁(七)-4"이 이어집니다.

(七)-4

○. 15-17세기의 중앙 유라시아 대륙

오이라트는 몽골 제국시대에 바이칼 호 서부 연안에 살던 강력한 삼림 몽골인들이었다. 17세기 이후도 오이라트들은 4개의 소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로스(Choros), 두르베트(Dorbet), 호쇼트(Qoshot), 토르쿠트(Torghut)가 그것이다.

서몽골인들은 자신을 오이라트연맹 이라고 불렀고, 카쉬가리아에 있던 투르크인 이웃들은 칼묵이라고 불렀다. 칼묵, 준가르, 오이라트는 동일한 집단을 가르키는 상이한 명칭이었다.

오이라트의 수령 마흐무드는 명의 영락제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했는데, 그것은 오이라트 혹은 서몽골로서는 쿠빌라이 가문이나 동부 몽골

의 다른 수령들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 조정의 지원을 구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다.

1422년 경 아룩타이에 의해서 대칸에 오른 울제이 테무르는 명의 영토인 영하와 감숙의 변경지대를 쑥밭으로 만들었고, 영락제가 급히 그를 응징하러 왔을 때는 이미 고비사막을 건너 북방으로 물러 간 후였다. 그 직후 아룩타이는 울제이 테무르를 살해하고, 스스로 대칸에 올랐다.

영락제는 오이라트의 수령 토곤 테무르로 하여금 아룩타이의 주도권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도록 사주하여 그를 살해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오이라트어로의 원정은 실패하고 말았다.

아다이(Adai)는 호르친(Qorchin)부의 지도자이고, 호르친은 흥안령산맥의 동부, 즉 눈 강과 만주 지방의 경계에 가까운 곳에 근거하고 있던 동몽골의 부족이었다. 그들의 수령은 테무제 옷치긴 혹은 카사르-둘 다 칭기스 칸의 동생-의 후손들이었다.

아다이와 그의 신하였던 아룩타이는 연합하여 오이라트와 중국에 대한 전쟁을 벌였고, 오이라트는 마치 시계추가 왔다갔다 하듯이 다시 한번 영락제에 접근하였다. 영락제는 몽골리아 아다이에 대한 최후의 원정(1422-1425)에서 보르지긴 출신의 정통 칸국에 대한 오이라트의 저항을 지원해 주었다.

토곤 테무르의 아들 에센 타이시-중국측 자료의 야선也先-전성기의 오

이라트의 영역은 발하쉬 호에서 바이칼 호 까지, 그리고 바이칼 호 에서 장성 연변에 까지 미치게 되었다. 과거 몽골의 수도였던 카라코룸도 그의 영역의 일부가 되었다. 또한 에센은 하미 오아시스를 장악하고 1445년에는 중국의 일부였던 열하 까지 수중에 넣었다.

에센의 뒤를 이은 사람은 그의 아들 아마산지(Amasanji)였다. 아마산지는 모굴리스탄의 차가타이계 칸국을 침공하여 일리 근처에서 당시 칸 이던 유누스를 패배시켰다. 유누스는 투르키스탄 시로 도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내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오이라트는 정기적인 약탈을 통해 오래 동안 그 주변-특히 서남방-을 괴롭혔다. 간단히 말해 에센이 죽은 뒤(1455), 오이라트는 동몽골의 칭기스 칸 일족과 겨루어야 했던 동방에서는 쇠퇴를 경험했지만, 서방에서는 여전히 일리 강과 카스피 해 사이의 초원 지역을 위협하고 있었다.

오이라트 혹은 서 몽골의 쇠퇴가 동몽골의 칭기스 칸 일족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 동몽골은 종족내부의 치열한 싸움으로 서로를 죽이고 있었다.

칭기스 칸의 27대 후계자인 대칸 만두굴(Mandughul)은 종손인 볼후 지농(Bolqu Jinong)과의 전쟁으로 1467년에 사망했는데, 볼후 지농 역시 칸으로 선포되지 전에 피살되었다(1470).

한 때 그렇게 많던 쿠빌라이 일족들 가운데 남은 사람은 불후 지농의 아들인 불과 다섯 살밖에 안된 다얀 뿐이었는데,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버려졌고, 심지어 재혼한 그의 어머니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

만두굴의 젊은 과부였던 만두카이 카툰(Mandukai Qatun)은 다얀을 데리고 와 보호하며, 그를 칸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충성을 바치던 몽골인들을 몸소 지휘하여 오이라트에 패배를 안겨 주었다.

1481년 그녀는 젊은 다얀과 혼인하였다. 1491-1492년에 다시 한번 오이라트를 격퇴 함으로써 동몽골의 주도권을 재확립한 여장부로서 역사에 기록되었다.

다얀 칸은 처음에는 여후(女后)의 섭정을 통해, 그리고 후에는 자기 자신의 용맹함을 통해 긴 치세를 누렸고 칭기스 칸 일족의 권위를 부흥시켰다.

그는 전통적인 구분방식에 따라 동몽골의 부족들은 동부의 좌익(준가르-Jun ghar)과 서부의 우익(바룬가르-barun ghar)으로 나뉘었다(이러한 배치는 모두 남쪽을 향해 있었다).

제1익은 카간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었고, 제2익은 카간이 자기 자식들 가운데에서 뽑은 지농(Jinong)의 휘하에 두어졌다.

전자는 차하르(Chahar-군주를 배출), 할하(Qalqa), 우량칸(Uriyang qan)으로 구성되었고, 후자는 오르도스(Orodos), 투메트(Tumet),

융시예부(Yung shi yebu-하라친 혹은 하르친으로도 불림)로 되어 있었다. 다얀이 이러한 재조직을 수행할 때 어느 정도의 폭력이 동원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서부의 투메트인들의 일부가 그들의 수령으로 임명된 다얀 칸의 아들을 살해 하였다. 그 결과 몽골의 이 두 익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마침내 승리를 거둔 다얀 칸은 그 집단을 해체하여 다른 다섯 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다얀 칸의 막내 아들인 게레센제 옷치긴(Geresenje Otchigin)은 할하강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오이라트를 밀어내고 서쪽으로 읍사 노드 까지 확대해 나갔다.

오이라트를 훔도 지역 까지 밀어 낸 이 같은 정복은 투메트의 군주 알탄 칸이, 오르도스의 수령이자 자신의 종손인 쿠툽타이 세첸 흥타이지(Qutuqtai Seshen Qongtayiji)의 지지를 받아 통합된 다얀 제국의 몽골인들을 직접 지휘함으로써 성취한 것이었다.

여러차례 전투에서 패배한 오이라트는 1552년 몽골제국의 종주권의 상징이자 본거지인 카라코룸을 상실하였다.

○. 다얀 제국의 분할(오르도스와 할하의 칸국들)

이 몽골 국가들의 가장 큰 약점은 가족의 유산을 분배하는 관습에 있었다. 다만 제국은 비록 외국에 대한 정복전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고, 팽창 범위가 몽골리아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칭기스 칸제국과 유사한 점이 있었다.

그 건국자가 사망한 뒤 여러 수령들, 즉 모든 형제와 사촌들은 차하르의 수령을 배출하는 분파의 지도자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였는데, 그것은 마치 일종의 봉건적 가족국가와 같은 것이었다.

이 같은 분할은 칭기스 칸 후예들의 역사에서 그 동안 볼 수 있었던 어떠한 예 보다는 더 철저한 분열을 초래하였다.

그 한 예가 오르도스 집단의 건설자이자 강력한 군주였던 군 빌릭투 메르겐 지농이다. 1550년 그가 죽자, 그의 부족은 9명의 아들들에게 세밀하게 분할되었고, 장자인 노안다라(Noyandara)가 받은 것은 오늘날 왕(Wang)부족에 해당되는 두르벤 코리야(Dorben Qoriya)의 "깃발"에 불과하였다.

봉건적인 연대도 느슨해 졌고, 이와 동시에 최고의 칸이 배출되던 일파에 대해 마땅히 표시해야 했던 명목상의 복속도 약해졌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칭기스 칸의 뒤를 이은 바로 그 다음 후손들의 권위를 허물어 뜨렸던 것과 똑 같은 과정을 보게 된다.

할하의 왕공들이 오이라트를 흡도 지방으로 몰아 내고 케룰렌과 향가

이 산맥 사이의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자, 차하르 지방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독립을 했다.

그러한 예가 할하의 왕족인 게레센제의 증손자 솔로이 우바시 홍타이지(Sholoi Ubashi Qongtayiji)였다. 그는 1609년 경 과거 오이라트인들의 본거지였던 키르키스 노르(Kkfgis Nor)와 읍사 노르 지방을 장악하고, 거기에서 오이라트를 카라 이르티쉬로 쫓아 냈다(1620,1623). 그와 사촌이었던 또 다른 할하 왕공 라이코드 칸 역시 오이라트를 정복하고, 알탄 칸의 동쪽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할하 지역은 게레센제의 손자들에 의해서 다섯 칸부로 쪼개졌지만 항상 긴밀하게 연합했던 것은 아니었다. 1662년 알탄 칸이었던 롭상(Lobdzang)은 이웃이던 자삭투 칸을 공격하여 그를 포로로 잡은 뒤 처형시켰다. 이로 인해 투시에투 칸은 다른 몽골의 왕공들과 연맹을 맺어 알탄 칸을 공격하여 도망치게 하였다.

알탄 칸은 외부의 도움에 힘 입어 잠시 세력을 회복하였으나, 1682년에 새로운 자삭투 칸에게 급습을 받고 붙잡혀, 1691년에 그와 함께 그의 칸부도 소멸되어 버렸다.

할하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칸부의 소멸은 오이라트로 하여금 잃어 버렸던 흠도 지역을 다시 차지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일족의 몽골 제국 가운데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의 재흥(再興)은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족내의 분규로 인해 쇠퇴했다.

100년 안에 차하르의 대칸은 오르도스의 칸들에 대해서 조차 명목적인 종주권을 행사하는 위치로 전락하였고, 그것도 할하에 있던 4명의 군주들과는 전혀 무관하였다. 이렇게 해서 동몽골은 다얀 칸이 등장하기 전에 존재했던 것과 똑 같이 다시 혼란스런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13-14세기 중국을 지배했던 칭기스 칸 일족의 황제들은 천자가 된 뒤에도 언제나 몽골의 대칸으로 남아 있었고, 지나간 19개의 왕조들의 유산을 받아 들였으면서도 그들은 차가다이와 훌레구와 조치의 가문이 지배하고 있던 투르키스탄, 페르시아, 그리고 러시아의 다른 칸국들의 주군이면서 동시에 칭기스 칸의 후예로 남아 있었다.

○. 17세기 서몽골

동몽골, 보다 정확히 말하면 내몽골인들은 만주 왕조가 북경을 장악하기 9년 전인 1635년, 그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만주족의 중국대륙정복에 기여했다. 그러나 만주족의 주도권이 확립된 뒤 일부 몽골인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1675년 쿠빌라이 가문의 종가에 해당되는 차하르의 칸 부르니(Burni)는 이웃 투메트를 비롯한 동몽골인들을 부추켜 강희제에 대하여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도록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다.

부르니는 패배하고 황제의 군대에 포로로 붙잡혔다. 이것은 내몽골에서 최후의 반발이었고, 그때 부터 그곳의 팔기(八旗)들은 양순한 신하가 되었다.

그러나 만주인의 중원 제국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것은 이제 형편없이 쇠퇴해 버린 동몽골이 아니라 칭기스 칸의 제국을 다시 부흥시키려고 시도한 서부에 있었다.

서몽골 혹은 오이라트 연맹체. 1434년 부터 1552년 까지 몽골리아 전역을 지배했던 그들은 투메트의 수령 알탄 칸이 주도하는 동몽골에게 패배하여 흡도 지역으로 밀려났었다. 그들은 거기서도 할하의 왕공들 가운데 하나였던 알탄 칸에 의해 쫓겨나서 서쪽의 타르바가타이로 물러났었다. 더구나 1455년 그들의 칸이었던 에센 타이시가 사망한 뒤로 오이라트 연맹체는 와해되어 버렸다.

그렇게 오랫동안 서몽골 칸국을 형성했던 4부 연맹체의 주민들은 각자 독립을 획득하였다.

이 4부 주민들은 초로스, 두르베트, 토르구트, 호쇼트가 있었고, 여기에 두르베트의 속부(屬部)인 호이트(Qoyit)가 첨가 되었다.

초로스, 두르베트, 토르구트, 호쇼트는 비록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4부 연맹체"라는 일반적인 호칭으로 불렸다.

그들은 또한 "좌익의 주민들", 즉 "왼 팔"이라는 의미의 준가르(Jungar)라고도 불렸으며, 서양의 "Zungar"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 명칭은

건륭제의 증언으로 밝혀졌듯이 원래 4부족을 가르키는 것이었지만, 후에는 그 중심부족인 초로스로 한정되었다.

더구나 초로스나 두르베트와 호이트의 수령들은 동일한 가족에 속했다는 사실도 알려지고 있다.

토르구트-몽골어로 "호위"를 뜻하는 torghaq에서 나온 말-는 지금도 고대 케레이트 군주들의 후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왕가에 충성을 바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쇼트의 지배가문은 칭기스칸의 동생인 카사르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였다. 주도권을 갖고 있던 부족은 초로스였는데 울루트(Olot)라고도 불렸다.

이 당시 서몽골은 정치적인 불안정 뿐만아니라 새로운 지적 활동도 보여 주었다. 자야반디타(Zaya Pandita)가 몽골어 발음을 보다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 7개의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고대 위구르식 몽골문자를 완벽하게 만든 것도 1648년 경의 일이었다.

(이상은 르네 그루세(Rene Grousset) 지음, 김호동외 2인 옮김,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역사적 교훈

중국북부, 서장, 그리고 신장등 유라시아에서 칭기스 칸의 후손들이 벌였던 골육상쟁은 1600여년간의 오랜 방랑생활을 접고 농경민들 처럼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한 과도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명나라의 영락제와 청나라의 강희제는 칭기스 칸 후손들의 골육상쟁을 기회로 삼아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명이나 청나라의 군대를 끌여 들여 형제들을 죽이거나 영토를 헌납하는 매국행위를 하지 않았고, 중국인들의 끈질긴 동화정책에도 융화되지 않았다.

그들은 비록 많은 땅을 빼앗겼지만, 칭기스 칸의 혼(魂)만은 굳건히 지켰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는 동이민족이 배워야 할 역사적 교훈이다.

※ 이 게시글의 후속편으로 "6살 백이가 중국황제에 등극하다 (七)-5"가 이어집니다.

(七)-5

○. 홍타이지가 급서하다.

홍타이지는 1643년9월21일에 사망했고, 여섯 살 짜리 그의 아들이 중국의 순치제順治帝(1644~1661)로 등극하였다. 순치가 죽은 뒤 그의 어린 아들 강희(康熙)대신 통치했던 섭정왕(攝政王)들(1661-1669), 오랜 치세를 구가 했던 강희제康熙帝(1669-1722), 그리고 강희제의 아들 옹정제雍正帝(1723-1735)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청나라는 중국천하를 평정했으며 오늘날의 광활한 영토를 중국대륙에 편입시켰던 것이다.

홍타이지가 국호를 후금에서 대청으로 바꾼 해가 1636년이다. 그로부터 8년 후 한창 응지를 펼 나이인 향년 52세에 급서했다.

우선 여기서 생각할 것은 청을 건국한 홍타이지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고, 그의 후손들이 중차대한 왕위계승 문제를 결정하도록 했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게 된다.

중국천하를 손에 쥔 봉건왕조가 자신들의 후계자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여기에 미개한 여진족이 어떻게 중국천하를 평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왕족회의에서 장성한 형제들을 모두 놔 두고 아직 어린 6살 백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후손들의 절박했었던 사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1644년에 이르면 급박했었던 전국의 반란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중이었고, 각본에 따라 1644년 서남쪽에 망명정권이 들어 섰고, 또 그들을 토벌할 삼번왕들도 이미 결정이 되어 현지에 부임했다. 특별한 사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린 황제가 즉위를 해도 천하를 평정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것 같았다.

당시 큰 변수는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조선, 중국대륙의 서북과 북부의 칭기스 칸의 후예들이다. 조선은 이미 1636년에 청의 속국이 되었고, 칭기스 칸의 후예들도 당분간 자신이 중국천하를 평정할 동안, 천하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누루하지석방교섭 당시에 이미 약속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될 것도 같았다.

홍타이지의 후손이 서북과 북부의 칭키스 칸의 후예들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홍타이지는 후손들과 구명나라의 신하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은 정세판단과 미래의 중국대륙의 안정을 위해 자신의 거취를 결정했던 것이다.

왕위계승에 관한 문제는 1606년에 누루하지가 처음 애신각라를 건국하기 전, 조선의 광해군과 그를 수행한 조선관리들과의 명나라정권인수문제를 토의할 당시에 거론되었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자신이 중국천하를 얻은 후, 후손들이 제위(帝位)를 계승하지 못한다면 무엇때문에 목숨을 걸고 명나라와 조선의 반란군들을 진압한단 말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부족회의때 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며칠간의 회의 결과 마침내 최종 결정을 내린 누루하지는 광해군과 이조 건국당시, 명나라의 절대적인 지원 속에 쿠데타에 성공하도록 힘 썼던 신라후손의 능력을 믿고 대륙정벌에 나섰던 것이다.

당시의 여진족의 국력으로 보나 인구면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낙후된 여진족이 문명이 한창 앞선 명나라와 조선을 정벌한다는 것은 정신이상자가 아닌 이상 모험에 나설 수 없는 일이었다.

여진족은 태조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엮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을 때 한

편으로 놀랐고, 다른 한편으로 반가웠다. 여진족의 영웅이 고려 왕조를 엮고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없이는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여진족 전체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바로 이와 같은 누루하지의 결정이 동이민족의 운명과 미래의 중국의 운명을 바꿔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명나라와 조선의 미래를 점 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후계자를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후손이 중국의 황제가 된다는 것과 여진족이 2000여년 동안 동북지방의 삼림지대에서 살아 온 미개한 부족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좀 더 넓고 문명화된 세계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만은 보장된 미래였다.

그리고 칭기스 칸의 후손들이 서장을 비롯하여 신장주변과 중국의 북부 몽고리아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골육상쟁의 모습들이 누루하지가 중국천하를 얻은 후 영토를 쪼개어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서는 안된다는 인생철학을 광해군과 신라후손들로 부터 설득당했던 것이다. 이것이 훗날 이지 사후에 청나라 후손들이 왕족회의에서 내린 최종결론 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당시 명나라 후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문제다. 이러한 조건을 내 걸고 여진족의 중국 천하통일

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던 것이다.

사실상 6살 백이가 황제에 자리에 올라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카를 보좌하는 친삼촌인 도르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간접 통치는 안정된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여진족처럼 아무런 기반도 없는 중국대륙에서 펼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다.

권력의 속성상 삼촌이 조카를 없애고 권력을 잡는 역사는 고대 봉건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이러한 예는 당태종 이세민과 조선의 수양대군의 권력싸움에서 나타났었던 사건들이다.

어찌 여진족이라고 다르겠는가?.인간의 욕심은 모두 같은 것이다. 이와같은 선대의 역사와 칭기스 칸 후손들의 골육상쟁의 역사가 청나라 후손들의 권력에 대한 탐욕을 잠재우고 6살 백이를 중국천하의 황제로 선포하도록 한 계기(契機)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진족의 중국천하통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세력은 바로 서몽골의 오이라트와 동몽골의 할하 왕족들 이었다. 할하의 왕족인 게레센제의 증손자 솔로이 우바시 홍타이지(Sholoi Ubashi Qongtayiji)는 동몽골을 다섯부로 쪼개어 후손들에게 나눠 주었다.

동몽골은 다얀 칸에 의해서 오이라트를 신장의 서쪽으로 몰아 낸 뒤 몽골제국을 건설했으나, 그들의 세력범위는 서몽골과 동몽골에 한정되어 있었다. 다얀 칸은 유목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

문에 고대 흉노처럼 중국의 남부를 향해 말을 몰지 않았고, 또한 그의 후손인 동몽골의 칸들이 후금의 홍타이지가 기획하고 있는 중국대륙정벌과 조선침략의 드라마를 들은 후, 그의 요구조건에 순순히 응했음은 물론, 청나라의 중국진출을 도와 주었던 것이다. 가장 위협적인 상대로 부터 지원을 약속받은 홍타이지는 자신감을 가지고 조선을 두 번 침략했고, 명나라의 반란진압과 미래의 과업을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이다.

엄밀히 말한다면, 청나라의 순치제로 선포했다는 역사가 정설이다. 중국의 순치제로 선포했다는 역사는 틀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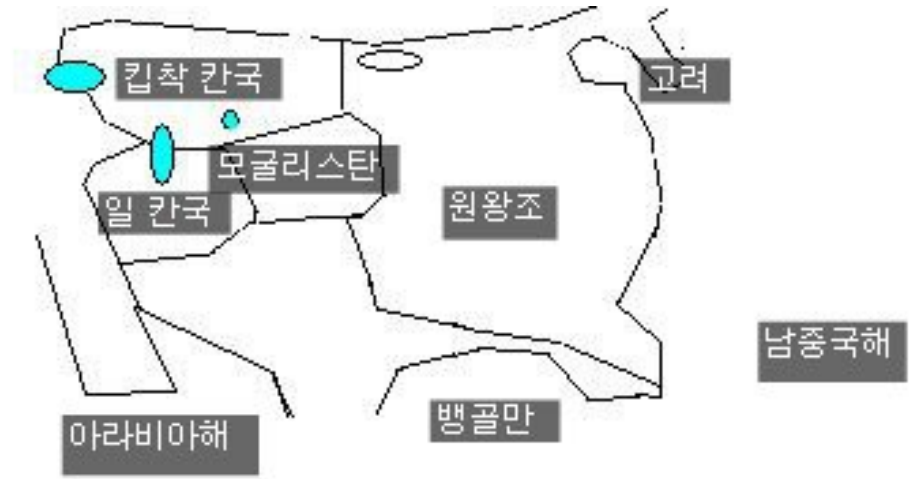
1644년에 대륙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1948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했고, 이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재창조했기 때문에 위와같은 모순된 역사가 태어 난 것이다.

우리는 반민족 매국노들이 동이민족의 역사를 축소왜곡하여 반도역사로 만든 후, 후손들을 계속 세뇌시키는 저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1592년 부터 시작하여 1636년 까지 약 40여년 동안 조선, 명, 그리고 여진족 등 삼국이 벌였던 드라마틱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교훈을 동이민족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노심초사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게시글의 후속편으로 "제국의 분열(七)-6"가 이어집니다.

1300년경 징기스칸 제국의 분열



왼쪽초록색부터
 1. 흑해
 2. 카스피해
 3. 아랄해

1300년경 제국의 분열

이상은 책 웨터 포드 지음. 정영목 옮김 "징기스 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역사뒤돌아보기

블로그

역사뒤돌아보기

<http://blog.daum.net/fuke888>

저자

이 재 훈

발행일

2014.02.23 13:15:33

 블로그